Weekly 공감

NO.237
Korea.kr/gonggam
2013.12.16

기획특집

나눔-이웃과 함께할수록 행복이 커집니다

세대간 일자리 토론회 "청·장년 고용은 대체관계 아닌 보완관계"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전력 분석… 한국 16강의 꿈 "공은 둥글다"

혹한도 이겨내는 나눔

이숙
철원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강원 철원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꼬마 서너 명이 연신 손을 호호 불며 뛰어노는 모습에서 잠시 매서운 한파를 잊고 어릴 적 향수에 젖어봅니다. 최근 철원군청은 각 가정에서 하수관이 동파되는 피해를 줄이고자 겨울철 베란다 물청소 금지 등의 예방지침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동안은 또다시 한파와 싸우며 이겨내는 법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원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찾아 낡은 집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활동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이번 겨울처럼 매서운 추위가 올 것에 대비해 난방 점검과 보일러 교체·수리 등의 집중 사업을 펼칩니다.

최근 저희 센터가 찾은 한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하던 사업마저 망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분의 도움으로 집에 계속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집에 제대로 된 욕실이 없고 난방도 되지 않아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집수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집수리봉사단과 웅비사랑단(군부대자원봉사단)이 1차 사전조사를 거쳐 작업을 분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면 씻을 수 있도록 욕실을 개조하고, 연탄보일러를 설치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에 대문이 따로 없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맞아야 했는데, 대문을 만들어 한겨울에도 마루에 앉아 밖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문 양쪽으로는 군부대 자원봉사자들이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려넣어 아픈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조금이나마 화사한 분위기에 마음을 덥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노후한 집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자원봉사단인 '웅비사랑단'과 작업을 분담해서 하기도 합니다. 철원군 가족봉사단에서는 알뜰바자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내복이나 두꺼운 담요 같은 보온용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내복과 전기장판이면 올 겨울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쳐도 생활하는 데 힘이 돼 줄 겁니다.

철원군 가족봉사단에서는 알뜰바자를 통해 성금을 모아 그 돈으로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배달합니다. 내복이나 두꺼운 담요 같은 겨울철 생활필수품이 각 가정을 오가기도 합니다. 물질만이 아닌 따뜻한 정을 통해 이 추운 겨울을 모두가 포근히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

위클리 공감 2013.12.16 Korea.kr/gonggam | No.237 통권 338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기획특집

나눔을 실천하는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

언어문화개선운동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표지이야기

지난 11월 27일 서울 성동구청에 모인 어린이집 아이들이 1년간 모아둔 돼지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42개 구립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올해 초부터 모은 이 동전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2. 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3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5호 〈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기사를 읽고

이희정(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특화된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ㄴ **답글**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침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의료관광호텔업을 알기 쉽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 김성은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235호 〈'유료 웹툰 서비스' 성공 이끈 정부 협업〉 기사를 읽고

이성업 이사(레진엔터테인먼트)

컨설팅이나 자문 지원도 좋지만 사업자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실비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실비 지원이 다양하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ㄴ **답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해외 창업에 따른 마케팅, 회계, 통·번역 등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컨설팅 비용을 85퍼센트 이상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창준 팀장(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236호 〈온(溫)맵시로 동절기 에너지 절약〉 기사를 읽고

이영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클리공감〉을 읽은 후 온맵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맵시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홍보 자료를 얻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ㄴ **답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홈페이지(www.greenstart.kr)를 둘러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맵시뿐 아니라 여름에 적합한 쿨맵시 등 저탄소·친환경 생활에 대해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 권춘경 사무관(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매서운 겨울 추위 '온(溫)맵시'로 극복!

직장인 정지영(가명) 씨는 겨울만 되면 출근길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정 씨에게 이른 새벽 세찬 바람은 마치 '시베리아 바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 씨에게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출근길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며 정 씨를 비롯해 내복, 목도리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온(溫)맵시'를 뽐내는 재미에 푹 빠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과 이야기하며 수면양말, 손등장갑, 덧신 등 '온맵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온맵시'로 건강과 멋, 둘 다 챙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김혜민 기자

'댓글에 답글'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탭진(디지털매거진)	www.tabzin.com
리디북스	ridibooks.com

알림

2014 스마트프로덕트 창업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4 스마트프로덕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열정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스마트프로덕트 : 스마트폰, 스마트TV와 같은 기존 스마트디바이스와 연동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품을 총칭)

응모분야	스마트프로덕트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
응모자격	개인 및 팀(5명 이내) 단위 예비·기창업자 누구나 (단, 기창업자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한함)
시상내역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상 및 상금(200만원)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상 및 상금(2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상 및 상금(200만원) ※ 그 외 시상내역은 홈페이지(www.seoultp.or.kr) 참조
수상특전	서울 동북부 창업센터 우선 입주 및 무료 창업지원, 서울 테크노파크 BIZ PLAZA / 부산테크노파크 BIG Center 우선 입주 및 무료 창업지원, 창업 관련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컨설팅·교육 지원 등
응모일정	2014년 1월 6일까지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contest@seoultp.or.kr
문의	cafe.naver.com/stpcontest 또는 facebook.com/seoultp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캐치프레이즈 공모

환경부와 강원도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알리기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전 국민 참여가능
응모주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알리기. 응모부문은 캐치프레이즈
시상내역	▶최우수상(1점)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100만원 ▶우수상(1점) 강원도지사상, 상패,상금 50만원 ▶장려상(2점) 상금 30만원
응모일정	12월 22일(일)까지 ▶일반인 공모 : 대상(1건, 500만원) ▶전문가 공모 : 대상(1건, 2천만원) ※세부 시상내역 홈페이지(www.국유지.com 또는 www.gukyugi.com) 참조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cbdcatch.com)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4156–2500

낱말맞히기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37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23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2 재물에 대한 욕심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 청렴한 공직자.
3 소의 뼈나 위, 곱창, 양지머리 따위를 넣고 진하게 푹 고아서 끓인 국.
4 말하는 태도나 버릇. 말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가락. "그의 OO는 공손하다."
6 내장의 여러 기관. "OO 기증은 곧 생명 나눔이다."
8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칫 OO에 빠지기 쉽다."
10 재물이 넉넉함. 'OO층과 빈곤층.'

세로 풀이

1 우리나라 사람의 말. "OOO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2 삶은 콩을 통째로 발효시켜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전통 음식. 주로 찌개를 끓여 먹죠.
5 속씨식물의 암술대 밑에 붙은 통통한 주머니 모양의 부분. 그 속에 밑씨가 들어 있죠.
7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거나 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
9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 온 큰집.
11 "우리나라가 2017년 U–20 FIFA 월드컵 OO에 성공했다."

〈위클리 공감〉235호(12월 2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4** 방고래 **6** 유부 **7** 가마솥 **9** 원고지 **10** 발효 **11** 송이

세로 **1** 쪽방 **2** 빨래 **3** 몽유도원도 **5** 고구마 **7** 가지 **8** 솥발이

〈위클리공감〉 235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신원(광주시 서구 내방로) **박정희**(울산시 남구 문수로)
이영숙(충북 음성군 감곡면) **이진원**(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정창재(경기 용인시 수지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339–012)

국제항공질서·국제규범에 부합

이어도까지 확대… 마라도·홍도 남방 영공도 포함 12월 15일 발효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동·서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2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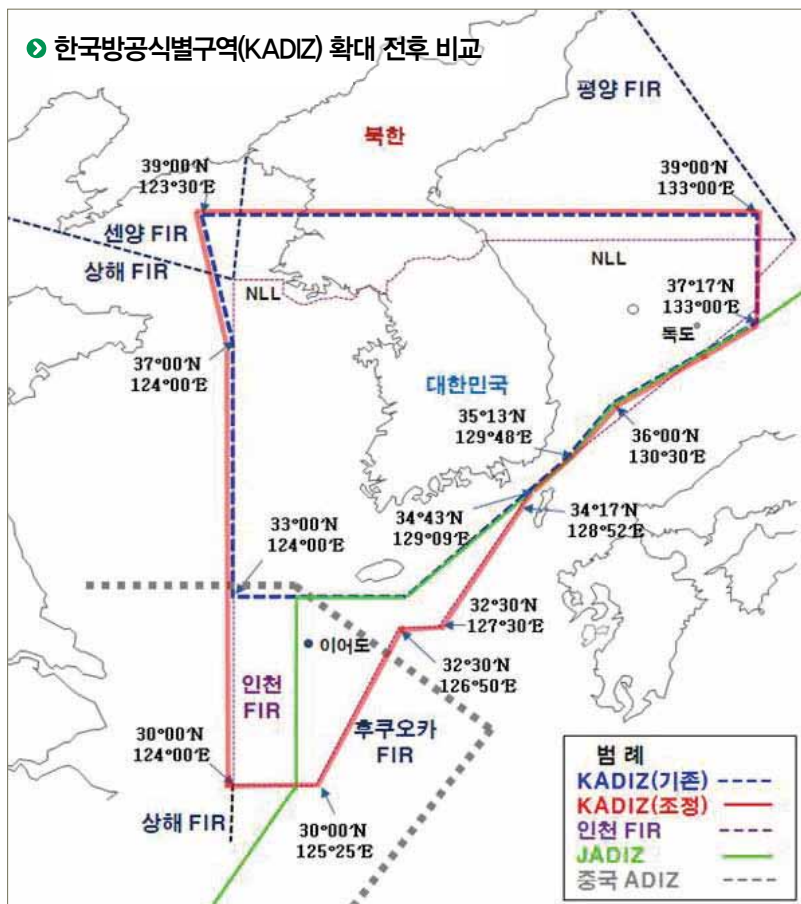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새로운 KADIZ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KADIZ 확대와 관련, 12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9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일방적 선포와는 다르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국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자료·국방부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해 분쟁 소지 적어

정부, 대화의 길 열어놔… 우발적 사고 대비한 한·중·일 3국 대화 계기 될 수도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내적으로는 영토와 영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영공과는 별개 개념으로, 한 국가의 영토와 영공 방어를 위해 정해 놓은 공중구역이다.

어찌 보면 중국이 지난 11월 22일 동중국해 상공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행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토와 영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

해군의 이어도 인근 초계활동은 당연한 자위권 발동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와 제주도 서남쪽 영공까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기존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국에 의해 설정됐다. 이어도가 제외되었지만 설정 당시에도 이어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았고, 지금 이어도 인근 해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선포 전 우리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었다. 또 향후 서해와 남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을 시사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이고,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방적인 선포에 나선 것은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기싸움'을 벌여온 일본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설정한 KADIZ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만든 우리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KADIZ 확대 설정은 국제적 분쟁 소지가 적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선포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은 아주 시의적절해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고, 중첩 부분에 대해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아니다. 우리 해군의 이어도 인근 초계활동 강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갈등고조 요소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영해에 대한 당연한 자위권 발동으로 간주된다.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항공기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예방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고 예방은 한·중·일 3국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사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중국의 유감 표시는 방공식별구역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부분, 바로 이어도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이면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다른 사안이 잠복되어 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계기로 한·중·일 3국은 협상과 소통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포는 서로 입장을 알린 것이기에, 지금부터는 국가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개편이 FIR비행구역과 일치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조율능력을 배가해 노력한다면, 이번 사안은 끊어진 중·일 대화를 트고 한·중·일 3국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동북아 협력 증진과 소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

글·윤영미(평택대 교수·외교안보 전공)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

중앙포토

10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선진국 사례나 고용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장년의 정년연장이 청년취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청·장년 고용, 대체관계 아닌 보완관계”

60세 정년연장법 국회 통과 계기로 ‘세대간 일자리 경합’ 오해 풀 자리 마련

최근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법을 계기로 세대간 일자리 경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일자리 공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가 열렸다.

1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상생토론회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학계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자 가운데에는 청년위원회 박신영 위원이 청년대표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이 장년대표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기업 중심 정규직-연공급-평생직장 모델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세대간 일자리 경합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필연적이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실제 일정한 경합이 발생할 영역이 있다 해도 그러한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재조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함께 마음껏 일하는 사회 : 현안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28년간의 고령자와 청년층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각 세대 고용률 변화의 주된 요인은 경제상황이며,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2020년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은 같은 기간 20.9퍼센트에서 18.1퍼센트로 줄어들어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년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 교수는 ‘60세 정년시대 : 세대간 일자리 상생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정년연장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은 정년연장 근로자의 생애임금과 생애생산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즉, 주요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이 입법 이전에 평균 53세였고, 향후 2016년 이후 3년 동안 1년에 1세 정도 증가해 2018년 평균 56세가 된다고 볼 때 2조8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어 교수는 “고용연장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간 나은 솔루션을 찾아보아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대상이 될 사람들을 미리 해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은 고성장 시대에 형성된 사다리형 인사관리, 승진제도를 60세 정년에 맞춰 조정할 것 ▶노동조합은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에 동참하고 능력개발에 나설 것 ▶정부는 기업의 인금·인사 제도 조정을 도울 인프라를 지원할 것 등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이정식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의 부족, 베이비부머 대책, 연금재정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성장이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및 고용창출형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이 가능한 소득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중·고령자 일자리는 일부 특정 업종과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년제 및 연공형 임금체계와 맞물린 종신고용, 또는 고용안전을 보장한 사용자측의 암묵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협회 이호성 상무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의 초점은 청년층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공공부문,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라며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정년 연장 대신 일정기간 60세 고용 허용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와 인사관리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또한 기업 현실에 맞는 임금, 인사관리체계로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근 객원기자

12월 11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가 문제”

서울대 경영대학 박희준 교수는 “우리나라 일자리는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가 문제다. 다들 좋은 일자리에 가고 싶어하지만 모든 대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회는 없다고 본다”면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태도 변화도 중요하다”며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경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연령간 일자리 충돌문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년연장법은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체계 개선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간 일자리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고령층 은퇴 증가가 청년층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네덜란드·프랑스·독일·스페인 등을 보면 청년층 일자리를 위해 고령층이 조기 퇴직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년연장법을 계기로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체계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한 편견이 일부 직종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박신영 위원은 “정년연장법 통과로 인해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취업자 근무여건 악화가 우려되므로 아빠와 딸의 상생을 위한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년대표인 주명룡 회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논쟁적인 태도보다 세대간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 청년위원회 박신영 위원

“장년층 ‘낀세대’ 위한 배려 필요해요” “정책에서 청년들 의견 적극 반영을”

고령화사회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일자리와 복지제도가 변화를 맞이하면서 세대간 관심도 뜨겁다. 청년위원회 박신영 위원과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이 청년세대와 장년세대를 대표해 일자리, 복지 등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딸 같은 박 위원, 아빠 같은 주 회장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Q 최근 정부의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청년층의 소외감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명룡 회장 “장년들이라고 다들 대기업, 공공기관같이 좋은 일자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또는 더 열악한 직장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힘든 상황을 버팁니다. 정부에서 93만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협회에서 조사해 보니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지율이 청년층보다 장년층에서 낮았어요. 은퇴 이후 이미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는 안 올 거야’ 하는 심정에서지요. 임금피크제 역시 장년층의 선호도가 낮았어요. 장년층은 당장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박신영 위원 “정년 연장으로 전체 일자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청·장년이 같이 살기 위해 아빠는 경직된 연공제를 파괴하고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는 분담과 양보를, 딸은 막연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건설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봐요.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청년들은 늘 악용과 오용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 역시 보호제도가 필요해 보여요. 기초연금제 같은 경우도 미래 수혜자인 청년들과도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Q 60세 정년제로 인해 장년 일자리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회장 “고령화사회에서는 청년층 고용이 그만큼 줄게 되고, 고령층 고용이 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선진사회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선진사회를 보면 고령층 고용으로 청년층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정년 연장 제도 도입 전에 퇴직을 맞아야 하는 주변부 아버지 세대는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

박 위원 “현실적으로 두 세대가 겹친 서비스·판매 쪽의 비중이 워낙 많아서 대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또한 모두가 선호하는 안정된 1차 노동시장에서의 엄격한 고용보호는 청년들에게 있어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요. 신규 채용이 줄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청년들이 질 낮은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Q 60세 정년제 도입과 관련해 보완 혹은 정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주 회장 “주변을 보면 저보다 4, 5년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정년 후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개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낀세대’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혜택을 조금은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박 위원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만 정당한 보상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태에서 1차 노동시장의 노조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비정규직 시장을 포함한 2차 노동시장 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Q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대별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 회장 “지금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 중심으로 가고 있어 장년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장년세대 가운데 경력단절 남성도 적지 않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목적의 하나가 은퇴자에 대한 점진적 은퇴 대비라고 하는데, 장년 남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발이 시급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은퇴자까지 염두에 둔 제도라는 것이 좀 더 부각돼야 합니다.”

박 위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가정이 있는 여성이나 종일 일하기 힘든 고령자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얻고자 할 거고요.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유연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이 아닌 직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전제된다면 시간선택제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Q 60세 정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초연금제 등이 모두 언젠가 청년층도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주 회장 “앞으로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세대는 행복한 세대라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년이 65~70세입니다. 고용시장이 유연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길이지만, 고령화사회가 되어갈수록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사이에는 갈등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박 위원 “물론 맞아요. 하지만 청년세대에게 ‘언젠가 수혜를 받을 테니 그냥 버텨!’ 라고 하는 말은 ‘빵이 없으면 비스킷을 먹으면 되지’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오늘날 살고 죽는 문제이기에 심각해요. 그래서 ‘너는 수혜받고, 나는 손해보고’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혜를 받는 쪽에서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는 쪽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건설적으로 협의해 가야 해요.”

Q 일자리, 연금 등에서 세대간 이견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 회장 “지금의 아버지 세대와 딸 혹은 아들 세대는 다른 세대처럼 보이지만 결코 다르지 않아요. 청년이 곧 장년이 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 연금, 유권자 권리 등 전체적인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교감이 이뤄져야 해요. 그런 대화와 교류의 자리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12월 11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도 좋지만, 일자리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청·장년이 주인공이 되어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감이 이뤄지면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문제가 되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딸 혹은 아들로서 먼저 생각할 테니까요.”

박 위원 “그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풀어나간 협의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60세 정년제도 청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되었어요.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의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의 발표자 90퍼센트는 장년이고 10퍼센트인 저만 청년이에요. 그래도 신경 써주시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청년위원회와 중·장년 대표 협의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이원근 객원기자

품격 높은 말글로 한국 국격 높여요

어려운 공공언어, 국어 오·남용, 청소년 비속어 줄이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 한글학자 주시경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 2008년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

중앙포토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된 한글날(10월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 입구에서 열린 훈민정음 목판 인쇄체험 행사에서 학생들이 훈민정음 탁본을 뜨고 있다.

언어는 사회의 얼굴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도구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꼽히는 한글은 한국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아껴온 문화유산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자 199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이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3개국 13개소이던 세종학당은 2013년 현재 51개국 117개소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국어의식과 언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우리 시대 언어의 자화상을 살펴보면 어려운 공공언어의 확산과 축약·변형으로 인한 국어의 오·남용,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비속어, 저속어와 폭력적 언어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범국민적인 언어문화개선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말과 글을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 각국은 자국어를 보호하고 쉬운 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바른 모국어 사용을 위해 '바-로리올법'과 '투봉법'을 제정했다. 제화·제품·용역의 명칭과 송장, 영수증에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다. 폴란드는 상품과 서비스 명칭을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러시아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유어 지키기 운동을 벌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9년부터 쉬운 언어쓰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운동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의료 등 전 분야로 확산됐다. 미국도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쉬운 영어 사용규정을 마련했고 2010년에는 쉬운 글쓰기법, 2011년에는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쉬운 글쓰기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라는 조직도 출범시켰다. 모국어의 중요성과 쉬운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바르고 고운, 품격 있는 언어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한다. 사용자의 국어의식을 일깨우고 다양한 담론으로 국민 스스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은 문체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은 2014년 1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연계해 국어, 방송언론, 문화예술, 교육, 시민단체 등 각 관련 분야별 단체 및 기관과 함께 구성한 범국민연합을 발족할 계획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연계해 범국민연합 발족

문화융성의 토대로서 우리말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어기본법을 개정해서 공문서에 보다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이라는 직책도 생긴다.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도 준비했다. 이는 각종 문서 및 서식에서 쉬운 언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에 특별표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 보급할 계획이다.

언어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송·인터넷 언어를 개선하는 기능도 활성화한다. 방송언어 지침을 마련해서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유도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플(악플의 반대 개념)운동' 등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언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홍보물을 제작 방영하고 방송·인터넷에서의 언어생활 자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국민의 언어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말과 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범국민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익광고와 기획보도, 기획사업을 공모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국어정책과 김혜선 과장은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한국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며 국민이 한글을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조용택(이코노미스트 기자)

안녕! 우리말

청소년들 무분별한 한글 사용 해결

사회적 협업 통한 단계별 문화치유 방식 적용

거리에서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중생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들 옆을 지나다 보면 종종 귀를 의심할 때가 있다. 사용하는 언어 대부분이 비속어와 욕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욕설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청소년 언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는 사회 각계각층과 힘을 모아 다양한 치유 방법을 준비했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생에게 바른 말을 알려주고 중학생에게는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의 시간을 확대한다. 언어생활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해 체계적인 교육을 돕고 이와 연계한 언어문화교육 집중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는 언어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을 위해 문체부가 언어를 문화로 느끼며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배경이다. 함께 시를 짓고 연극을 하며 고급 언어를 경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학교·학급·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바른 언어 사용 운동도 있다. UCC공모전, 욕설 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 등 욕설 퇴치를 위한 다양한 공모전을 열어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동참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보다 전문적인 언어예절 교육도 시작한다. 방송사와 함께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바른 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른 언어 사용을 돕기 위해 교사용 훈화 자료 및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법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 98퍼센트 "한글·한국어에 자긍심"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명 조사… 응답자 85퍼센트 "맞춤법·어법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의 98.2퍼센트가 한글·한국어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전국의 만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언어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은 한글과 한국어를 사랑하며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세대별로 언어를 사용하는 실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85.1퍼센트는 맞춤법이나 어법을 잘 알고 있으며, 잘 모르는 말이 나오면 62.7퍼센트가 국어사전을 찾는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주변 사람 10명 중 7명이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평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0.6퍼센트였다. 그러나 청소년 응답자는 4퍼센트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소년 언어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60세 이상의 경우 51.9퍼센트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무려 13배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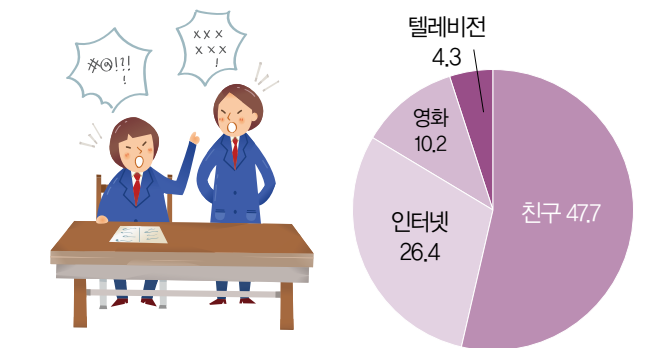
욕설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어른들과 청소년의 답변은 크게 갈렸다. 어른들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말투 때문"이라고 꼽은 반면 청소년들은 주변 선·후배나 친구들의 말투를 꼽았다. 또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 부모 등 주변 성인의 말투도 청소년들에게는 주원인이었다. 앞으로 우리말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성인들의 모범적인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체부는 말과 글이 우리 문화의 토대이자 문화융성의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조용탁(이코노미스트 기자)

저품격 언어 난무하는 방송·인터넷

어디서 욕설을 배웠나?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천명 설문 (단위:%)

욕설하는 청소년 비율

청소년 응답자의 94.6% "저 욕 좀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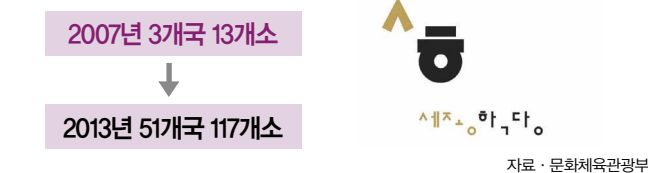
청소년이 가장 많이 쓰는 욕설은?

씨X > 병X > 개새X > 미X놈 > 존X > 지X

늘어나는 세종학당, 해외에선 한국어 배우기 열기 '쑥쑥'

2007년 3개국 13개소

2013년 51개국 117개소

자료·문화체육관광부

KBS-1 TV 〈우리말 겨루기〉 진행 엄지인 아나운서

"500회 자리에 제가 있어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우리말과 우리글을 유쾌하고 재미있는 질문으로 풀어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KBS-1TV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우리말 겨루기〉. 10여 년의 세월 동안 방송 500회를 맞이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한다. 〈우리말 겨루기〉 사회자 엄지인 아나운서는 "우리말에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500회나 만들어왔다는 것은 무척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면서 재미있고 예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김범준 사진작가

〈우리말 겨루기〉 진행을 맡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은?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세요. 〈우리말 겨루기〉를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시거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도 우리말 관련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할 때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말 겨루기〉는 '우리말'을 다룹니다. 그러니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는 순간만이라도 우리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우리말을 막 쓰잖아요. 영어를 쓰면서 과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을 줄이고, 또 정체 모를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으신가요?

"아쉽게 탈락한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1~2년 전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가진 출연자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 연배 정도 되었는데, 정말 우리말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대기실에서 조그만 종이에 삐뚤삐뚤하게 적은 것들을 가져와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봐도 모르는 게 없으셨고요. 충분히 '달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달인 직전에 떨어지셨어요. 출연자 중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달인이 되는데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요(웃음). 우리가 막 썼던 말이나 외래어인 채로 그냥 쓰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순화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우리 고유어도 꽤 많아요. '메모하다'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우리 고유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적바림하다'예요. 참 예쁘죠? 〈우리말 겨루기〉 덕분에 재미있고 예쁜 우리말을 저도 참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방송할 때 실수하신 적은 없나요?

"출연하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답을 쓸 때가 종종 있어요. 출제 문제 중에 '다리' '팔걸이'라는 단어를 듣고 '의자'라는 답을 찾는 연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 문제의 도움말 중에 '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답을 '해표'라고 쓰고, 또 어떤 분은 '양반'이라고 쓴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웃겨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웃음이 터져서는 멈추질 않아요. 제가 잘 웃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울어요. 그런데 한번 울면은 멈추기가 힘들어요(웃음)." G

글·국립국어원 '쉼표, 마침표.' (www.urimal365.kr)

생각과 상상이 만나다

창업 초기 기업·구직자·투자자 한자리에… 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길 밝히는 등불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미래산업과학고 1학년 권서원 군으로부터 난청 어르신의 텔레비전 시청 편의를 위해 제작된 스피커 리모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창조경제박람회가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20개 정부부처가 후원한 이번 박람회는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많은 분들의 끼와 재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창조경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박람회는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조경제의 실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사례들이 전시됐으며, 창업 오디션 경연프로그램인 '스타트업 2013'을 비롯해 세계적인 창조경제 리더들의 특별강연 등 여러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일반 관람객들 외에 아이디어 보유자, 창업 희망자들이 멘토링을 비롯한 각종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았다. 또 투자자들은 200여 개의 부스와 이벤트를 통해 투자 가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구인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인재를 연결해 주는 '스타트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 행사도 열렸다.

박람회장은 창조경제를 소개하는 '프롤로그관',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관',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역동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도전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성장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생관', 전문가들이 무료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컨설팅&지원 플랫폼'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아이디어관에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포함해 각종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40개가 전시됐다. 전시물들 중에는 '엄청난벤처' 이유미 대표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머글라우'도 있었다. '머글라우'는 스마트폰으로 단체급식 인원을 사전에 예측해 음식물 쓰레기의 낭비를 막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는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음식이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앱을 개발했다. 현재 이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앱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은 벤처·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상담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등 20여 개 기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특허상담, 금융지원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했다. 또한 고벤처포럼,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민간 분야의 벤처·창업 투자기관 7곳이 투자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창조경제박람회 눈에 띄는 출품작

1 머글라우

- '머글라우'는 구내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메뉴 정보(음식 종류, 칼로리 등)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가 식사 여부와 정보를 사전에 체크하면 식당에서는 당일 배식량을 예측하여 음식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원리다.
- 단체급식에서 발생하는 남는 음식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2 난청 노인을 위한 스피커가 구비된 리모컨

- 난청 어르신들의 TV 시청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리모컨에 헤드셋 또는 스피커를 달아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이 TV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해외 창조경제 리더들, 특별강연 통해 노하우 전달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의 교류와 협력을 돕는 '네트워킹 파티'도 개최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 행사는 12일부터 14일까지 모두 3일 동안 창조경제박람회 부스 관람시간이 종료된 오후 5시 이후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의 벤처 육성 담당자들이 참석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계획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온오프믹스의 양준철 대표, 위버스마인드의 정성은 대표 등을 비롯해 벤처 창업에 성공한 국내 벤처창업자들과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창업자들이 성공스토리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창조경제를 실현해 온 해외지역 창조경제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초기 창업자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특별강연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성공을 위한 벤처기업 경영전략'을 주제로 세계무대에서의 성공을 위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중점 추진전략과 창업 동기, 위기극복 사례, 창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획담당관 이석래 과장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김혜민 기자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학교서 보관 학생휴대폰 "분실걱정 끝!"

학교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출고가격 내에서 차감 후 보상

내년 1월부터는 잠금장치가 양호한 보관장소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보관해야 정부의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학교 국어교사인 김혜진(29) 씨는 지난 9월 한 학생과 갈등을 빚을 뻔했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학생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학생이 김 씨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나중에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면서 "휴대폰이 고가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보관하다 분실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12월 5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0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휴대폰을 수거한 후 다시 돌려주는 학교가 각각 58.7퍼센트, 85.6퍼센트, 65.2퍼센트를 차지했다.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대책 마련 이전에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어도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흔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사가 관리자의 주의만 다하면 보상·지원

이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의만 다했다면 분실하더라도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정상 관리자가 해야 할 주의는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수거·반환 시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할 것 ▶분실물품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 네 가지다.

반대로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폰을 보관했거나 분실물품에 대한 학교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절차는 ▶학교에서 먼저 분실신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심의 후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 뒤 지급 여부·지급액 결정 ▶적정액 지급 등으로 이뤄진다. G

글·남형도 기자

지원 절차

1. **사고 신고** 교사→학교장→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보상 심의** 학교장→교권보호위원회
   ※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보상 청구** 교권보호위원회→학교장→중앙회
4. **보상금 지급** 중앙회→학교장→피해학생

단속 늘리자 교통사고 증가세 '주춤'

경찰, 지난해 사망자 늘어 교통단속 강화… '세수 메우기' 지적은 사실과 달라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46) 씨는 지난달 속도위반 통지서를 두 차례나 받았다. 박 씨는 "출근길에 급하게 차를 몰다가 지정된 속도를 넘겼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던 구간인데 예년보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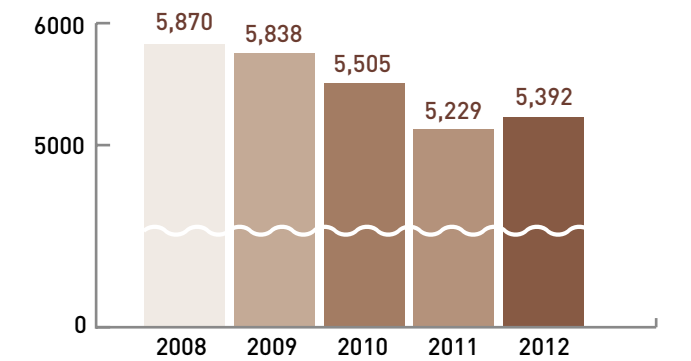
박 씨의 생각처럼 올 들어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등 교통단속 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정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단속 강화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질서 의식이 약화됐다"며 "교통단속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0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392명으로 전년보다 163명(3.1퍼센트) 증가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지난해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정지선 준수율은 6.1퍼센트, 안전띠 착용률은 8.9퍼센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준수율 5.8퍼센트 상승 등 긍정 효과

이에 따라 경찰은 연초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대 교통무질서'를 규정하고, 스쿨존 법규위반 등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 위주로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섰다. 4대 교통무질서란 꼬리물기,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등화, 이륜차 인도주행을 지칭한다. 이로써 올 11월 말 기준 4대 교통무질서 단속은 47만 4,980건으로 전년보다 374퍼센트,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은 36만9,406건으로 1,164퍼센트가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올 11월 말 기준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발생(3.7퍼센트), 사망(7.3퍼센트), 부상(5.3퍼센트) 모두 감소했다. 또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정지선 준수율은 5.8퍼센트, 안전띠 착용률은 7.5퍼센트가 상승하는 등 교통 안전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G

글·이창균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 명)

교통법규 준수율 추이 (단위 : %)

자료 : 경찰청

기획특집

나눔을 실천하는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1÷10÷10,000?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었기에 천이나 만으로 부푸는 것이 참된 수학!
끊임없는 나눔만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제 겸 외과의사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교육 · 의료활동을 펼친 고(故) 이태석 신부(1962~2010)의 말씀입니다.
신부님만큼 대단한 헌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일상에서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뇌사자에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그 모든 것 역시 훌륭한 나눔 실천입니다.

지난 12월 8일 뇌사 장기기증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가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만나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렸다.

장기기증… "새 생명 살린 위대한 사랑"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식인들 300여 명 모여 추모와 감사의 자리 마련

2007년 12월 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복싱 경기장에서는 세계 챔피언 방어전이 한창이었다. 35세의 노장 복서는 열 살 어린 도전자를 상대로 세계 챔피언 방어전을 치르고 있었다. 노장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갔다. 그러다 경기 종료 10초를 앞두고 노장 복서가 상대편 선수의 주먹에 맞은 채 그대로 쓰러졌다.

12라운드 판정승을 거뒀지만 선수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의식불명 및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영원한 챔프'로 불리는 고(故) 최요삼 선수의 이야기다.

최요삼 선수를 비롯한 장기기증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12월 8일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제이드홀에서 열렸다. '지금도 곁에 있어요' 행사에는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가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장기기증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요삼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됐다. 각막·신장·간·심장 등의 장기를 6명에게 선물로 주고 떠난 최요삼 선수는 커다란 울림을 줬다. "이렇게 나의 여행은 6명의 새로운 여행이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장내에 흘러나오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도 곁에 있어요' 행사에서는 장기기증인들과 이식인들의 사연이 함께 소개됐다. 이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친선대사로 위촉된 배우 최일화 씨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김학빈 군의 어머니가 쓴 편지 일부를 낭독했다.

8명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난 아들

"제 아들은 참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은 2006년 1월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직도 아이를 떠올릴 때면 그리움에 사무쳐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난 착한 우리 아들,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하고 떠난 따뜻한 아이. 하지만 저는 가끔씩 '우리가 한 결정이 아들을 위한 일이었을까, 잘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중략)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그때가 사람이 진짜 죽음을 맞이할 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들 학빈이가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통해 새 생명을 살게 된 이식인 여러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 주세요."

낭독을 마치자 객석에 앉아 있던 강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 씨는 13년 전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아들 강석민 군을 먼저 떠나 보냈다. 지난 2000년 3월 갓 고등학교에 들어간 석민 군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날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라는 말을 뱉은 후 갑자기 쓰러졌다. 석민 군의 병명은 '다발성 뇌출혈'이었다. 그리고 그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강 씨는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아이였기에 뇌사 상태라는 진단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3일 동안 그와 가족들은 쓰러져 있는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아들이 쓰러진 지 3일째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을 아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극 재능기부 배우 최일화 씨

"소중한 장기기증의 긍정 이미지 널리 알리고 싶어"

배우 최일화 씨는 지난 8월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최 씨는 장기기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주제로 한 공익 드라마를 찍으면서 장기기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드라마를 찍으며 장기기증인 유가족, 이식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참 많이 울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촬영장에 갈 때마다 배우들에게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 씨는 "여전히 장기기증에 대해 두려움, 선입견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젊은 배우들이 많다"며 "앞으로 작품을 통해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번 행사를 위해 재능 기부에 앞장섰다. 그가 이끄는 극단 '혜화'를 통해 연극 〈선물〉을 기획, 제작한 것이다. 〈선물〉은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어린 소녀 사랑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을 통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최 씨는 앞으로 이 작품을 전국의 초·중·고교와 군부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그는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무조건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기기증을 주제로 한 연극 〈선물〉이 공연됐다.

그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은 컸지만, 그 슬픔에 사로잡힌 채 아들의 마지막을 그대로 흘려보내기에는 아들은 너무 젊었다. 그는 아들의 찬란한 젊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그의 가족은 석민 군이 쓰러진 지 3일째 되는 날 아들의 장기, 조직, 시신 기증을 결정했다. 석민 군은 폐·심장·간·췌장·신장·각막 등을 기증해 8명의 환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강 씨는 매년 3월이 되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웃다 잠자리에 들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을 붙잡고 아파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자신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그는 근무 중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생명존중'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본인이 직접 겪은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 1천여 명이 모인 '생명사랑나눔+페스티벌' 행사장에 나가 장기 이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강 씨는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이식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할 때도 있다.

"세포기억 이론에 따르면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기증자의 감정이나 느낌을 심장을 통해 기억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이론은 아니지만 정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처럼 언젠가 석민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저를 스쳐 지나갈 때는 가슴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책임감도 무거워"

이날 행사에는 장기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이식인들도 함께 참여했다. 신희상 씨는 지난해 간을 이식받았다. 그는 30대 중반에 B형간염 보균자임을 알게 됐다.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됐고 그는 20여 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는 마음속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장기 이식 신청을 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간 이식을 받게 됐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로 인해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가신 분이 있기에 마냥 좋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큰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현하기엔 어려운 게 제 입장입니다. 생명을 새로 받았다고 해서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제게 생명을 주고 가신 분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신 씨는 이식을 받은 후 삶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소중한 생명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만큼 이전보다 주변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삶에 임하게 됐다.

그는 "기증인의 가족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며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간 분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감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추모 연극에 이어 가수 양희은·지세희·투빅 노래 선물

이번 행사에선 장기기증을 주제로 한 연극 〈선물〉이 공연됐으며 가수 양희은, 지세희, 투빅이 노래를 선보였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윤영 씨는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고민을 담은 드라마를 보며 장기기증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가족들을 위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질병관리본부 정한덕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우리모두가 수혜자와 기증자 유가족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데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G

글·김혜민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장기기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뇌사기증

뇌혈관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골수
  ※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 **뇌사 장기기증 절차**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발급 → 사고·재해로 인한 뇌사상태 → 가족의 기증동의 → 뇌사판정 및 기증(이식) → 새생명 탄생

사후기증

심장사(심정지 후 사망) 후 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안구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 **사후 안구기증 절차**
  가족 동의 후 의료기관 또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연락 → 적출 의료기관에서 기증자 발생 장소로 출동, 안구적출(사망 후 12시간 이내)

생존시 기증

살아있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장기기증자가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온라인, 모바일 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02-2628-3602로 전화주시면 신청서와 회신용봉투를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관련 기관을 검색하여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우편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증과 신분증용 스티커, 차량용 스티커를 발송해 드립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실제 기증 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비가 와도 어르신 흐뭇한 얼굴 보면…"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등 전국 달동네에 기증받은 연탄 배달봉사 줄이어

한국중부발전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백사마을은 겨울철에 연탄이 꼭 필요한 곳이다.

"연탄이 비를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너무 젖으면 어르신들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길이 젖어서 제대로 배달이나 할 수 있을까?"

12월 9일 오후 1시 50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 모인 봉사단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쏟아진 비가 좀처럼 그칠 기미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좁은 골목 곳곳엔 흙탕물이 만들어져 이동마저 어려웠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자, 자, 연탄 나눔 처음 온 거 맞아요? 이분은 얼굴이 익으신데, 많이 해 보셨겠네요?(웃음) 배달할 집을 빠르게 결정해서 연탄이 최대한 안 젖게 한 분 한 분씩 전달할게요."

서울연탄은행 신미애 사무국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얀 우비와 노란 조끼를 입은 남녀노소 28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이날 연탄을 기증하러 온 한국중부발전 직원들이다. 손수레 두 대가 등장하자 남자 직원들이 조심스레 연탄을 옮겨 실었다.

비가 와도 연탄 배달은 가능했다. 연탄 수십 장을 손수레에 실은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비에 젖지 않게 보호했다. 이어 목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덧끼었다. 여성들은 지게로 연탄을 실어 나를 채비를 끝냈다.

중계동 '104번지'에 있다 해서 '백사마을'이란 별칭이 붙은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다. 오랜 세월 동안 경사진 불암산 자락을 따라 낡은 집들이 하나둘씩 생긴 곳이다. 재개발이 확정됐지만 아직 연탄을 때며 겨울을 나는 가구가 대다수다. 집밖으로 다 타고 하얗게 남은 연탄재 더미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겨울 따뜻하게 보내게 해 줘 고맙고 고마워"

"아이고, 비도 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이 봉사단원들을 보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아직 많이 남았느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어르신도 있었다. 해마다 연탄 기증을 받는 주민들로서는 낯설지 않은 광경이지만, 여전히 반갑고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마루에 난롯불을 지피며 겨울을 나는 공정순(80) 할머니는 최근 할아버지와 사별해 혼자 지낸다. 다리가 편치 않아 연탄을 가져다주는 온정의 손길이 더욱 고맙다.

"참 고맙지. 겨울이 점점 추워지니까 연탄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요즘 다리가 불편해서 연탄을 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돼."

비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봉사단원들도 할머니 이야기에 이내 환한 웃음을 지었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52) 동반성장팀장은 "그동안 재단에 기부하거나 노후 복지시설의 개·보수를 돕는 나눔 활동을 많이 했지만 연탄 나눔은 처음"이라며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연탄을 많이 땠는데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공정순 할머니처럼 다리가 편치 않은 어르신에게는 연탄 배달을 온 이웃들의 나눔 정신이 큰 힘이 된다.

손수레가 들어가기 어려운 비좁은 오르막길이 나왔지만 나눔 활동은 계속됐다. 단원마다 지게에 연탄을 옮겨 싣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긴 행렬로 마을이 또 한 번 들썩였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5킬로그램. 체구가 좋은 장정도 여섯 장을 둘러메자 "어이쿠, 무겁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날 한국중부발전 직원들이 배달한 연탄은 1,500장. 150장씩 10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총 2만장을 기증했지만 그치지 않는 비 때문에 더 이상 연탄을 배달할 수 없었다. 단원들은 배달이 끝난 후 서로 머리에 묻은 검은색 연탄가루를 털어주거나 뒤를 돌아보며 못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해마다 기업·기관·개인 등으로부터 연탄을 기증받아 백사마을처럼 연탄이 필요한 곳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외에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연탄 나눔 행진이 이어진다. 서울연탄은행은 올해 총 300만장의 연탄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숫자이지만 지난해 달성한 450만장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탄은행 임지영 사회복지사는 "불경기로 예년보다 금전적인 후원은 줄었지만 와서 배달만이라도 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주말에는 하루 최대 7개 팀이 다녀갈 만큼 연탄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G

글·이창균 기자 / 사진·이원근 객원기자

후원 문의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 033-766-4933

“평생 내 시간 없었지만 늘 행복했어요”

서울 난곡동 **유창순** 할머니, 24년간 쉼 없이 가정봉사원으로 독거노인 돌봐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난곡동. 미로처럼 얽힌 가파른 골목길을 앞장서 가던 유창순(72) 씨가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현관문 앞에 멈춰 섰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인기척을 낸 유 씨가 천천히 문을 열자 부엌 하나 딸린 방 안쪽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김모(91) 할머니가 일어나 앉으며 유 씨를 반겼다. 유 씨는 “홍시 좀 드시라고 가져왔다”며 들고 갔던 장바구니에서 홍시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은 뒤 친정집 찾은 딸마냥 냉장고와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하지만 둘은 모녀 사이가 아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김 할머니에게는 딸 하나가 있지만 왕래가 거의 없다. 현관문은 하루 종일 잠궈놓고 누가 와도 잘 열어주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고 찾아오는 유 씨가 올 때만 미리 열어놓는다고 한다.

유 씨는 김 할머니의 메마른 팔다리를 주무르며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살갑게 대했다. 안마와 말벗을 겸하는 가정봉사원 활동이다.

올해로 24년째. 그 사이 가까운 곳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고 난곡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와 가사도우미들이 생겨났지만, 김 할머니만큼은 아직도 유 씨가 직접 챙긴다. 나이 들면 적적한 게 제일 무섭다. 친딸처럼 말벗을 해 드리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마음까지 돌본다.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이제는 자식한테 못할 이야기도 나한테 술술 다 해요.”

밀린 빨래도 하고 집 청소에 목욕 봉사도 해 드린다. 아프면 남편 임영환(79) 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모신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갈 일이 있을 때도 동행한다.

지미연 기자

평범한 주부로 살던 유창순 씨(오른쪽)는 자원봉사도 사회활동이란 남편(임영환 씨)의 권유로 24년간 봉사의 길을 걸어왔다.

유 씨의 하루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봉사로 빠듯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손주 셋의 아침밥부터 챙긴다. 손주 중 둘은 대학생, 하나는 고2. 한창 왕성한 나이인지라 밥해 먹이고 빨래·청소해 주는 일이 쉽지 않지만,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타오는 것 보면 기특하고 고마워 힘이 난다.

낮에는 어머니 네 분을 모신다. 한 분은 친정어머니, 나머지 세 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다. 올해 97세인 친정어머니는 지난 4월 골반뼈를 다쳐 서울 독산동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유 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문안을 가면 못 알아보기도 해 마음이 짠하다.

“어제는 손주들 밥해 주러 돌아간다니까, 저보고 찻길 건널 때 손들고 건너래요. 병실 안에 웃음이 터졌어요. 백 살이 돼도 부모는 부모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다른 세 분 어머니는 김 할머니를 포함한 동네 독거노인들이다. 다들 2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제 자식보다 더 가깝다. 한 분은 유 씨네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산다. 12년 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500만원 받고 들여서 지금껏 전세금 한 번 올려 받은 적이 없다.

유 씨는 지난 1989년 봉천동 관악노인복지관이 처음 개관할 때부터 가정봉사원으로 독거노인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걷는 게 불편해 그만뒀지만, 2005년까지는 일주일에 5일씩 아침저녁으로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독거노인 60여 가구를 돌며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도 했다. 관절염이 심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빼먹거나 미루지 않았다.

경기도 남양주의 백석꾼 양반집안에서 5남5녀 중 장녀로 태어난 유 씨는 중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다가 20대 초반에 남편 임영환 씨와 결혼해 지금까지 슬하에 2남2녀를 뒀다. 면장을 하셨던 친정아버지는 다른 마을 어르신과 혼사를 결정했다. 그 분이 남편의 부친이고 나중에 유 씨의 시아버지가 됐다. 유 씨는 남편 임 씨가 “진짜 첫사랑”이라며 깔깔 웃었다.

결혼 후 첫 10년 동안은 보따리 살림이었다. 원호청(현 국가보훈처)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거의 매년 전근을 했다. 대구, 여수 등 낯선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30대 중반에야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난곡동 집에 살게 됐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밖에 몰랐던 유 씨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남편이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 보는 게 좋다, 자원봉사도 사회생활이라며 봉사활동을 적극 추천했어요. (나도) 평생 집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심심했어요. 그때가 넷째 가졌을 때였는데 그래도 밖으로 나다녔어요.”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은 1975년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하면서부터다. 신림3동 부녀회원들과 신림동, 봉천동 판자촌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어려운 이웃의 집안일을 도왔다. 1978년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녀반장, 1991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봉사 권한 남편과 응원하는 자식·손주들 고마워”

남편 임 씨도 10여 년째 지역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 씨는 한때 구청에서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돕는 자원봉사를 했는데, 당시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온 고등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자(漢字)로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정식 한자교습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유 씨는 24년을 한결같이 봉사하며 살아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01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남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바쁜 유 씨에게 “자기 생각도 좀 하고 쉬면서 지내라”는 주변의 만류도 많지만, 그래도 유 씨는 힘 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생각이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까도 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니 어떡해. 계속 해야지요. 평생 내 시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잠깐 앉아 쉬는 게 다예요. 그래도 감사해. 봉사하라고 권해 준 남편도 감사하고 끝까지 응원해 준 자식, 손주들도 너무 고마워요.” G

글·남창희 객원기자

원동헌 객원기자

문화나눔을 4년째 하고 있는 창작국악그룹 '아나야'.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등을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한다.

웃다 울다… 문화예술의 힘을 느껴요

창작국악그룹 아나야·벽수골 극단, 소외지역·계층 찾아 방방곡곡 '신나는 예술여행'

2010년 창작국악그룹 '아나야'가 다문화가정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할 때였다. 아나야가 퓨전 국악을 장르로 공연하는 그룹인 만큼 필리핀, 베트남 민요 등을 편곡해 관객에게 들려줬다. 반응은 뜨거웠다. 머나먼 땅에서 고향의 노래를 듣는 기쁨에 객석에서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나야의 민소윤 대표는 공연 후 그에게 찾아온 한 방글라데시 주부 이야기를 꺼냈다. "주부 관객분이 방글라데시에도 좋은 민요가 참 많은데 공연 때 듣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얘기하더군요. 방글라데시 민요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해 공연 때 꼭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나야가 문화나눔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을 시작한 첫해였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나누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2004년부터 시작돼 문화 인프라 시설이 약한 소외지역 주민과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 노령층 등을 방문하고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종류도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하다.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한다.

아나야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했다. 문화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는 공연 팀들이 소개해 준 것이 계기가 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문화가정, 2012년에는 농·산·어촌, 그리고 올해는 교정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했다.

해마다 기억나는 공연과 느껴지는 감동은 달랐다. 민 대표는 다문화가정 관객들과 함께한 공연을 다시금 떠올렸다. 당시 아나야는 네팔의 민요 중 한 곡을 아리랑과 같이 편곡해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 공연하는 날, 다문화가정 관객이 많이 찾아왔다. 민 대표는 "한 베트남 주부가 어렸을 때 듣던 자장가라며 들려줘서 고맙다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공연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각지의 교정시설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문화나눔을 했다. 공연을 본 수감자들에게서 편지도 종종 온다. 처음에 수감자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경계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다. 하지만 손편지에 또박또박 쓰여진 글씨와 함께 그려진 그림을 보자 이내 감동을 받았다.

민 대표는 "음악을 더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내년에도 꼭 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다"며 "요즘도 편지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화나눔이 주는 보람"이라고 말했다.

4년째 문화나눔을 하다 보니 고민도 많다. 공연마다 매번 다른 관객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공연장은 트로트를 편곡해서 넣고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는 인기가요를 프로그램에 넣는다.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나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벽수골 극단

경남 통영의 유일한 극단인 '벽수골'은 섬마을·산골마을을 다니며 8년째 문화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통영 유일의 '벽수골' 극단, 8년째 섬마을까지 공연

극단 벽수골 역시 문화나눔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벽수골은 경남 통영의 유일한 극단이다. 벽수골 극단 제상아 사무국장은 "벽수골 극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다 관객을 찾아가서 공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통영시가 섬이 많아 문화소외지대라 할 수 있는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연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제 사무국장은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2006년부터 문화나눔을 시작해 올해 벌써 8년을 채웠다. 5년 동안은 통영지역 섬마을인 사랑도, 욕지도, 한산도 등 마을을 구석구석 순회했다.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농협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북으로 강화도와 연천군, 남으로는 제주도의 우도와 마라도까지 가는 등 전국 80여 개 지역으로 무대를 넓혔다.

쉽지 않은 여정을 붙잡아 주는 힘은 섬지역 주민들과 나눴던 감동이다. 제 사무국장은 "공연이 끝나고 다시 오라며 눈물을 보이고 공연을 보며 함박웃음을 짓던 주민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짧은 시간이나마 그 분들의 외로움을 떨치게 해 준 것이 큰 보람이자 삶의 공부"라고 말했다. 연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깨달은 것도 큰 수확 중 하나다.

그 마음으로 어떤 섬에선 온동네 어르신들의 구두를 닦고, 또 다른 섬에선 풍물놀이를 하며 마을마다 돌아다녔다. 나눔공연이 펼쳐질 때면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다.

벽수골 극단은 각 지역 사회복지센터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극단 단원들의 재능 기부 덕분이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문화나눔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이다. 제 사무국장은 "벽수골 극단이 농·산·어촌을 주로 순회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나눔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글·남형도 기자

친구 같은 사제…"무료 과외로 성적 쑥!"

대학생 과외봉사 미담장학회, 주말마다 인근 중·고교생 대상 3시간씩 강의

미담장학회 카이스트 봉사단 멘토가 생물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신경세포인 뉴런의 신호를 받고 이 채널에 딱 붙어 입구를 열어주지? 뉴런에서 시냅스로 흘러온 활동전위는 다시 뉴런으로 이어지는 거지. 쉽지? 관련 영상 하나 보자."

젊은 학생 선생님은 과학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다. 골똘히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다.

12월 7일 토요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내 강의실. 고등학교 2학년 생물 수업이 한창이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한 듯했다. 생물과목 멘토(선생님)인 이준혁(24·생명화학공학과 2년) 씨는 "시험기간이라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멘토에게 들은 강의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까. 멘티(학생) 김현수(대전 둔원고 2년) 양은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돼요"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알고 보니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 1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주말과외 풍경은 미담장학회에서 진행하는 재능나눔 봉사다. 멘토와 멘티로 구성돼 주말마다 세 시간씩 강의를 듣는다. 카이스트에서는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을 가르친다.

미담장학회 김인호 사무총장(경북대 기계공학 3년)은 "미담(美談)이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만 있으면 마음껏 찾아와 공부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교실을 꿈꾸며 만든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 학교당 28명 정도의 위원들로 운영된다. 체계적인 수업 커리큘럼도 자랑거리다. 4분기로 나누는 각 학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0주 완성의 코스로 각 과목과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멘토들도 면접을 봐야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엄선된' 선생님들이다. 시험 강의를 거쳐 통과해야만 멘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담장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올해 3월 대전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비슷한 교육과정 거친 선·후배라 공감대 형성

선생님은 대학생, 학생은 중·고등학생이다. 나이 차이는 고작 대여섯 살 정도다. 교육봉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눈높이 수업이다. 멘티는 학교보다 편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비슷한 교육과정을 거친 선배한테 배우니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다.

최한나(한밭고 2년) 양은 "질문이 생기면 편하게 물을 수 있다"며 "주말 수업인데도 오히려 기다려져요"라며 웃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2학년 손경호 씨는 "가르칠 때마다 '밥 몇 공기 더 먹은' 오빠나 형이라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말했다.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고 햄버거를 같이 먹으며 고민상담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스승과 제자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3학년 박광석 씨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하도 잘 맞혀서 가끔 정답률 낮은 것만 골라서 풀게 한 적도 있어요"라며 짓궂게 웃었다.

성적도 쑥쑥 오른다. 김현수 양은 멘토 수업에 푹 빠졌다. 여름학기에 고등수학과 생물 수업을 듣고 이번 가을학기까지 이어 들었다. "지난 모의고사에서 생물에서 하나만 틀려 1등급이 나왔다" 며 "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니 보충수업이 따로 없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멘티들의 열정에 더욱 열심인 사람은 멘토들이다. "과외에서는 돈 받지만 교육봉사에서는 돈 대신 보람을 얻어가죠." 멘토들은 이구동성이다. 이기쁨(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3년) 씨는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 한 달에 과외로 440만원씩 벌던 '짭짤한' 수입을 포기했다. 가르치는 보람 때문이란다.

손창현(대덕고 1년) 군도 카이스트 멘토들의 뒤를 좇아 컴퓨터나 천문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한다. "멘토링 이전의 저는 '꿈은 그저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G

글과 사진·박지현 기자

미담장학회는 어떤 곳?

자발적으로 설립한 대학생 교육기부 단체

미담장학회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부 단체다. 2009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로 설립됐다. KAIST, UNIST,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활동한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대학생 400명이 3,300여 명의 청소년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문제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사업은 주말마다 가르치는 '미담장학회 봉사단' '방과 후 학교'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운동회' '봉사글짓기 공모전' '청소년 문화축제' '찾아가는 멘토링 교실' '이공계 멘토링 캠프' 등이다. 카이스트 미담장학회 봉사단 이상엽 회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2년)은 "미담장학회와 같은 다양한 멘토링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 정보 공유… “네 꿈을 펼쳐라~”

사진작가 김중만 씨 저작권 기증… 사업 노하우 공개 등 연말 맞아 활발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기증한 작품사진. <경이로운 곳(WONDERLAND)>

김중만 사진작가는 대한민국 건국 66주년을 맞아 작품사진 66점의 저작권 기증을 결정했다.

부산 해운대 행복나눔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제 작품들의 저작권 기증으로 국가 이미지가 한층 좋아지고 수출기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등 국익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인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1977년 프랑스 아를에서 열린 ‘국제사진페스티벌’에서 최연소로 젊은 작가상을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진작가 김중만(59) 씨. 그는 그동안 이병헌, 고소영, 원빈, 빅뱅 같은 국내 인기 연예인들을 주로 촬영한 우리나라 대표 사진작가다.

그런 그가 최근 특별한 나눔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신의 작품사진 66점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했다.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하는 예술가로서는 이례적이다. 하지만 김 작가는 공익을 위해 기꺼이 작품 일부의 저작권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신체 일부나 물질적인 뭔가를 기증하는 것만이 나눔의 전부는 아니다. 최근 들어 김 작가처럼 ‘지식나눔’이 열풍이다. 지식나눔은 문화·예술이나 과학·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 가운데 저작권 기증은 지식재산권자 등이 자신이 가진 권리(저작권)를 국가에 기증해 일반인이 이를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는 나눔이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가 또한 고(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대표적인 저작권 기증 사례 중 하나다. 김중만 작가의 경우는 내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인 점을 기념,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자신의 작품 66점을 직접 선정해 기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진엽 사무관은 “저작권을 나눈 사진들은 김 작가가 5년간 국내외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한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됐다”며 “김 작가가 추가로 저작권 기증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창작자의 저작권 기증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유마당’에 21만여건 자유이용 공유저작물

기증된 작품은 저작권 자유이용 공유저작물 사이트 ‘공유마당’에 연말까지 모두 수록된다. 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국민들이 비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1인창조기업 등에서 해외 수출이나 관광홍보용 자료 발간, 교육자료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상업적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마당’은 소설·수필 등의 어문 자료, 사진·미술 등의 이미지 자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총 21만여 건의 자유이용 공유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기업 외에도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연간 100만건 이상이 활용될 만큼 반응이 좋다.

지식나눔 관련 행사가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12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인천 지식재산경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2개 ‘지식재산(IP) 스타기업’이 참가해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에 대한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지식나눔에 동참해 호평받은 디자인 전문기업 디스토리의 하선주 대표 등이 감사패를 받는 등 지식나눔에 대한 독려도 이어졌다.

전문가 특강에 나선 스마트폰 주변기기 제조기업 엑스코리아의 장진태 대표는 “원래 음악가가 되길 꿈꾸며 미국 버클리음대에 진학했지만 현지 발명가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용기를 얻어 발명가 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들려줬다.

앞서 부산시 해운대구는 11월 16일 재송동 문화복합센터에서 ‘청년 해외 취업·창업을 위한 지식나눔 강연회’를 열어 250여 명의 청년들과 취업·창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카카오톡 박용후 이사,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아띠인력거 이인재 대표, 허브서울 정경선 공동대표 등 청년사업가 4인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던 경험들을 소개했다.

이밖에 해운대 행복나눔센터는 전문가 자문단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기업가를 위해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식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보다 나은 지적 정보들을 공유하려는 지식나눔의 열풍이 연말 우리 사회 곳곳을 풍성하게 가꾸고 있다. G

글·이창균 기자

저작권 공유저작물 홈페이지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매일 10원 동전 모아 2천만원 기부"

전파사 운영 진정군 씨, '적은 돈도 소중히 하면 큰돈 된다'는 교훈 알리고 싶어

이정근 객원기자

진정군 씨는 요즘도 매일 오전 10시면 근처 은행을 찾아 10원 더하기 방식으로 누군가를 위해 입금을 하고 있다.

초록 글씨로 1층 유리 벽면에 '그린전기'라 적힌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전파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로는 강서구 초원로에 위치해 있다. 그린전기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과 상장들, 그리고 곳곳에 넓적하게 펼쳐 쌓아놓은 대형 포장용 상자들이 눈길을 끈다.

전파사에 들어섰을 때 느껴졌던 찬 기운은 그린전기 주인 진정군(72) 씨가 손님 왔다며 전기난로를 피운 덕에 금세 누그러졌다.

"저 상자들이요? 길을 오갈 때마다 버려진 상자들을 주워 온 거예요."

이렇게 상자들을 전파사 안에 모아놓으면 폐지를 팔아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이 와서 가져간다고 한다.

실내에서도 두툼한 점퍼 차림으로 지내며 혼자 있을 때에는 전기난로조차 켜지 않고 있던 진 씨는 이렇게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폐품이나 동전을 모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을 무려 20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다.

진 씨가 동전 모으기로 나눔을 시작한 것은 1995년 6월 12일. 프랑스에서 한·일 월드컵 개최 확정 소식이 날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10원 더하기 저축을 시작했다. 첫날은 10원, 다음날은 20원 하는 식으로 매일 10원씩을 더해 저축한 것이다. 27년간 다니던 전기제품 제조업체에서 은퇴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면서 인근 공공기관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들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이들은 동전치기를 하다 그냥 두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푼돈도 모으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줘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월드컵 개최 확정을 기념해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002일째 되던 2002년 3월 7일 진 씨는 그동안 모은 2,150만원을 출금해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10세 어린이 100명에게 20만원씩 지원했다. 이후에도 그의 10원 더하기 저축은 계속돼 2003년 8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1천만원을 전달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부터는 항공사에 근무하던 아들이 1달러를 건네준 것을 계기로 매일 1달러씩을 모으기 시작해 1,004일 동안 모은 1,004달러를 2000년 11월 30일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 아동결핵환자 돕기'에 기부하기도 했다.

부모의 고향이 함경도인 그는 북한이 경의선 계획을 발표한 2000년 8월 1일부터 1원 더하기 저축을 시작, 2012년 7월 12일 3천일간 모은 448만1,932원을 통일 기금으로 기부했다.

동전 모으기 관련 신기록도 세웠다. 진 씨가 10원짜리 동전 11만개로 만든 가로 6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 동전벽화는 2009년 2월 17일 기네스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됐다.

10원 동전 11만개로 초대형 태극기 '기네스 기록' 보유

전파사 한쪽 벽면을 채운 표창장과 상장들 사이에는 그가 만든 초대형 태극기 사진과 기네스협회의 공인인증서가 자리하고 있다. 주변의 표창장과 상장들은 모두 동전 한푼을 귀하게 여기는 진 씨의 절약정신과 나눔을 기리는 내용들이다. 진 씨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201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진 씨는 절약을 통한 나눔이 주는 교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작은 목표가 생기면 작은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럼 씀씀이가 줄고 허튼 돈을 안 쓰게 되죠."

그가 나눔을 실천하게 된 좀 더 깊은 동기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 때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 품에 안겨 귀국한 진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6·25전쟁이 나면서 어머니, 동생과도 헤어져 힘든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원할 어린이를 찾을 때에도 그가 어머니와 헤어졌던 나이인 1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은 진 씨는 먹고살기 위해 서울 영등포시장, 남대문시장을 전전하며 온갖 일을 다 했다. 학력 대신 자격증이라도 따자 싶어 서른 두 번 만에 전파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성수동의 한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입사했다.

"군 제대 후 일자리를 구하러 성수동 공단에 갔더니 마침 구인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력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졸업장 대신 '모범사원이 되겠습니다'라는 혈서를 써서 제출했어요."

이에 마음이 움직인 회사 대표가 진 씨를 채용했고, 진 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먹고 자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동선, 알루미늄 등을 골라 팔기 시작했다. 매달 50만~60만원씩 수입이 생겼다. 그렇게 몇 년을 모은 2천만원을 기증해 회사 통근버스 3대를 구입했다.

"당시는 회사가 청주로 이전해 있을 때였어요. 농촌지역 여성들이 우리 공장으로 일하러 다녔는데, 차편이 많지 않아 출퇴근이 불편했거든요."

27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열심히 저축해 생활이 안정됐고 아들딸도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지만 그는 요즘도 전파사를 운영하며 매일 아침 10시에 은행에 가서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진 씨를 만난 12월 10일 그가 보여준 통장에는 이날 오전 입금한 돈 4만920원, 잔액 529만243원이 찍혀 있었다.

"이 돈이 1천만원이 되면 또 누군가를 위해 기탁하려 해요."

진 씨는 자신뿐 아니라 부인, 아들딸, 손자손녀 이름으로 3대가 저축하고 있다. 저축뿐 아니다. 배움에 한 맺혔던 그는 은퇴 후 50대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중·고교 졸업 검정고시를 마치고 한국방송통신대를 거쳐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방통대 졸업에는 10년이 걸렸다. 친근한 동네 전파사 아저씨 모습을 한 그에게서는 절약과 나눔을 넘어 가난도 세월도 꺾지 못한 치열한 삶의 열정이 풍겨 나오고 있었다. G

글·박경아 기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종가들의 삶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나그네 대접·재산 환원 등 문화 담아

곳간 뒤주 구멍에 '타인능해(他人能解)'란 글귀가 적혀있다. 운조루 창건주인 문화 류씨 종가의 가훈으로 '누구나 구멍을 열어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란다. 곳간의 쌀독이 비지 않게 항상 채워두어 주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해두었다. 당시 뒤주로만 한 해 수확량의 20퍼센트를 소비했다고 한다. 옆에는 작은 가양주(집에서 만든 술) 통도 놓여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종가문화의 단면이다.

나눔과 배려를 사회적으로 솔선수범 해 온 명문 '종가' 주제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내년 2월 2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종가' 특별전은 총 156건 238점의 유물에 종가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종가란 일반적으로 '한 성씨,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을 말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적선애일(積善愛日)'은 '밖에서는 착한 일을 쌓고, 안에서는 효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종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눔 문화이자 오랜 전승비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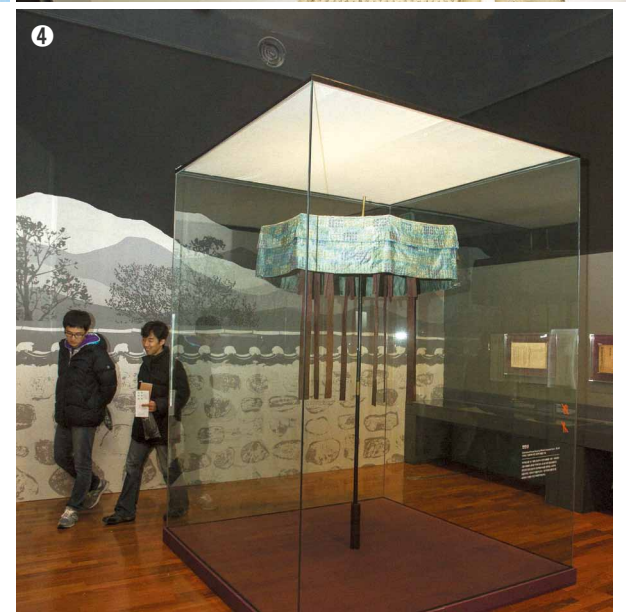
가훈으로 가르침을 이어오기도 한다. 최부잣집으로 널리 알려진 경주 최씨 교동 종가에는 육훈(六訓)이 전해 내려온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등이다.

종손의 가장 큰 의무가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 제사를 드리고 손님을 접대한다)'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진성 이씨 퇴계 종가 현 종손의 맏아들 이치억 씨는 "종가의 특징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라며 "귀천에 상관없이 주민들을 초대해 대접을 했던 인정(人情)이 바로 종가 문화"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물건이 담배합이다. 진성 이씨 주촌 종가에서 사용하던 용기다. 종손 이세준은 담배가 귀중했던 시절 접빈용 담배 개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두었다고 한다.

'애일당구경첩'(보물 제 1202호)은 경북 안동의 농암 이현보가 구순(90세)을 넘긴 부모에 고마움을 기념해 잔치를 벌인 그림이다. 남녀귀천을 가리지 않고 노인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전시를 다녀오면 자신의 뿌리, 종가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손대원 연구원은 "한국 종가의 힘과 문화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현대의 개인주의·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사회적 나눔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1 운조루 뒤주는 일명 '타인능해(他人能解)'로 유명하다. "누구나 쌀 뒤주를 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주민들이 뒤주에 담긴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했다.
2 영천 이씨 농암 이현보 종가의 손님 접대용 과반. 유과, 과일 그리고 안동식혜 등을 담는다.
3 여성 관람객들이 종부가 며느리에게 물려준 악어가죽백과 양장 등 현대 종부들의 물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4 진성 이씨 초산부사 이만기(1825~1888)의 공덕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이 감사표시로 바친 일산(日傘). 마을 주민들의 이름이 수로 새겨져 있다.

종가 나눔과 배려의 종가와 만나기

전시회장은 종가의 살림집처럼 구성했다. 나무 살로 만든 기와지붕을 천장에 설치하고 대청마루와 사랑방, 장독대, 부엌 등을 실제 모양 그대로 재현했다. 3차원 매핑(3D mapping, 입체영상화)자료로 만든 종손, 종부들의 생활물품들을 만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 02-3704-3114 www.nfm.go.kr
개관일정 2014.2.24까지
9:00~17:00(16: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넘지 못할 벽도 쉬운 상대도 없다… 공은 둥글다

16강 커트라인은 최소 1승 2무… 러시아·알제리·벨기에 모두 약점 있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에 소속된 국가대표축구팀 감독들. 벨기에 마크 빌모츠, 알제리 바이드 할리호지치, 대한민국 홍명보, 러시아 파비오 카펠로 감독(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럽 축구의 젊은 강자 벨기에와 '시베리안 특급'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돌풍의 주역 알제리까지. 절대로 넘지 못할 벽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쉬운 상대도 보이지 않는다. 홍명보(44)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브라질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도전은 실력이 엇비슷한 네 팀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축구팬들의 희망사항처럼 홍명보호는 H조에서 최소 1승2무 이상의 성적을 거둬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조별리그 상대국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고도 냉철한 답변을 내놓았다.

알제리, 정말 1승 제물인가

홍명보호의 16강 진출 여부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은 내년 6월 23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남부 해안도시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열리는 알제리와의 H조 2차전이다. 조별리그 경쟁자들 중 상대적 약체로 여겨지는 팀인 만큼, 반드시 이겨 승점 3점을 벌어야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제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6위로 한국(54위)보다 서른 계단 가까이 높지만 본선 진출 횟수는 브라질월드컵을 포함해 네 차례에 불과하다. 8회 연속 본선행, 2002 한·일월드컵 4강과 2010 남아공월드컵 원정 16강 등 꾸준한 성적을 낸 한국에 비해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알제리가 '손쉬운 1승 상대'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한준희(43) KBS해설위원은 "알제리 또한 한국을 1승 제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발재간이 좋은 공격수들이 살아날 경우 우리 수비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모두 커버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소피앙 페굴리(24·발렌시아), 186센티미터 장신이면서도 발빠른 원톱 이슬람 슬리마니(25·스포르팅리스본)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지현(40) SBS ESPN 해설위원은 "대표팀 멤버 중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축구를 시작한 선수들로, 아프리카 특유의 탄력과 유럽 축구의 기술을 겸비했다"면서도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수비 조직력이 허술하다.

주장이자 중앙수비수인 마지드 부게라(31·레퀴야)도 종종 흥분해 경솔한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2선 침투에 능한 이청용(25·볼턴)이나 손흥민(21·레버쿠젠)이 적극적으로 흔들면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6월18일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아레나에서 열리는 러시아와의 H조 1차전은 홍명보호의 16강행을 결정할 첫번째 시험무대다.

맞대결을 무승부 이상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면 이후 일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나 FIFA랭킹 22위의 강호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명문 제니트에서 4년간 뛴 김동진(31·항저우)은 다혈질이고 거친 러시아 선수들의 특성을 역이용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김동진은 "러시아 선수들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플레이 스타일이 거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도 "경기 중 신경전을 펼친 상대 선수에게 심판 몰래 거친 태클을 하거나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쉽게 흥분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해 파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부터 2년간 러시아 중소클럽 사마라에서 뛴 오범석(29·경찰축구단)은 "러시아 선수들은 체격조건이 뛰어나지만, 민첩성과 체력은 부족한 편"이라 진단하면서 "많이 뛰고 빠른 한국 축구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계적인 명장 파비오 카펠로(67) 감독의 지휘 아래 수비를 탄탄히 하며 선굵은 축구를 구사하는 러시아의 핵심 플레이어는 득점력과 패싱력, 킥력을 두루 갖춘 '멀티맨' 로만 시로코프(32·제니트)다. 김동진은 "옛 동료 시로코프는 '러시아의 구자철'이라 설명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제시했다.

한편 조별리그 3차전(6월26일 상파울루) 상대인 '원조 붉은악마' 벨기에에 대해 '2002 한·일월드컵의 영웅' 설기현(34·인천)은 "강하면서도 약점이 많은 팀"이라 진단했다. "벨기에 대표팀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세계축구 판

브라질월드컵 H조 4개국 프로필

(FIFA랭킹은 12월 기준)

	대한민국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
FIFA랭킹	54위	11위	22위	26위
본선 출전 횟수	9회(연속 진출 8회)	12회(연속 진출 5회)	10회(연속 진출 4회)	4회(연속 진출 2회)
본선 역대 성적	5승8무15패	10승9무17패	17승6무14패	2승2무5패
본선 최고 성적	4강(2002)	4강(1986)	4위(1966)	13위(1982)
지역예선 결과	최종예선 A조 2위(4승2무2패)	유럽 A조 1위(8승2무)	유럽 F조 1위(7승1무2패)	아프리카 A조 1위(5승1패) 후 플레이오프 승리(부르키나파소전)
한국전 전적		3전2승1무	1전1승	1전 1패
감독(국적)	홍명보(대한민국)	마크 빌모츠(벨기에)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	바이드 할리호지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요 선수(소속팀)	이청용(볼턴), 손흥민(레버쿠젠)	에당 아자르(첼시), 빈센트 콤파니(맨체스터시티)	로만 시로코프(제니트), 유리 지르코프(안지)	소피앙 페굴리(발렌시아), 마지드 부게라(레퀴야)

한국축구대표팀 향후 일정

(한국시간 기준)

날짜	내용	장소
2014년 1월 13일	소집 및 브라질 전지훈련	포즈 두 이과수(브라질)
1월 21일	미국 전지훈련	로스앤젤레스(미국)
1월 26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LA콜로세움(미국)
1월 30일	멕시코와 평가전	샌안토니오 알라모돔(미국)
2월 2일	미국과 평가전	카슨 스텁허브(미국)
3월	해외 원정 평가전	미정
5월 말	본선 직전 전지훈련	미정
6월 10일경	베이스캠프 입성	포즈 두 이과수
6월 18일	본선 H조 러시아전	쿠이아바
6월 23일	본선 H조 알제리전	포르투 알레그리
6월 27일	본선 H조 벨기에전	상파울루

한국축구대표팀 16강전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1차전 러시아전
6월 18일(수) 오전7시
브라질
쿠이아바
포즈 두 이과수
한국대표팀 베이스 캠프
1,100km
830km
상파울루
590km
포르투 알레그리
3차전 벨기에전
6월 27일(금) 오후5시
2차전 알제리전
6월 23일(월) 오전1시

도를 뒤흔들 만한 전력을 구축한 건 사실"이라고 운을 뗀 설기현은 "하지만 FIFA랭킹 11위이자 브라질월드컵 톱시드 배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허점이 많다. 특히나 '국제대회 경험 부족'이라는 뚜렷한 약점이 도드라진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벨기에 1부리그 클럽 안트워프와 안더레흐트에서 활약한 바 있는 설기현은 "벨기에 축구는 자유분방함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지나쳐 선수들이 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종종 발견된다. 한국 축구 특유의 조직력과 팀워크가 살아나면 충분히 해 볼 만한 상대"라고 귀띔했다.

기후환경과 일정 모두 '만점'

벨기에 프로리그가 몸담고 있는 선수들에게 빅리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무대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경쟁 풍토가 뿌리를 내렸다는 게 설기현의 분석이다. 벨기에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로 맞붙는 일정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다. 벨기에가 앞서 치를 두 경기에서 미리 16강행을 확정지을 경우 한국전에 느슨한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회 기간 중 브라질 서남부 관광도시 이과수에 베이스캠프를 차린다. 개막 일주일 전쯤부터 머물며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본선 도전을 시작한다.

대회 기간 중에는 경기 전날 개최도시로 건너갔다가 경기가 끝나면 이과수로 돌아가는 방식을 활용한다. H조 조별리그를 치를 세 도시(쿠이아바·포르투 알레그리·상파울루)는 시차가 없는 데다 이과수와의 거리도 멀지 않아 이동에 따른 체력 소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과수를 기준으로 러시아와의 1차전 장소인 쿠이아바가 1,100킬로미터로 가장 멀고, 각각 남부와 남동부에 위치한 해안도시 포르투 알레그리(590킬로미터)와 상파울루(830킬로미터)는 상대적으로 가깝다.

6월 평균 기온이 섭씨 30도에 이르는 데다 습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쿠이아바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역발상에 따른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뗀 그는 "한국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투 알레그리와 상파울루는 서늘한 해양성 기후라 경기를 치르기에 쾌적할 전망이다. G

글·송지훈(일간스포츠 기자)

세계축구 미래 이끌 '샛별들' 확인 무대

FIFA 주관 4대 축구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문체부·대한축구협회 축구외교력 키워

FIFA는 12월 6일(한국시간) 브라질 살바도르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을 2017 U-20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가 FIFA가 주관하는 4대 남자축구대회를 모두 치르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12월 6일(한국시간) 브라질 살바도르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은 2017 U-20 월드컵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년 한·일 월드컵, 2007년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이어 U-20 월드컵까지 개최하게 됐다. 일본(2002년)과 멕시코(2011년)에 이어 세계 세번째다.

개최국은 FIFA 집행위원 25명의 투표로 결정됐다. 2017 U-20 월드컵 유치를 희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12개국이었다. 하지만 개최국 대륙 안배 등 국제 축구계의 조정이 이뤄진 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2파전으로 좁혀졌고, 외교력·경험·인프라 등에서 한발 앞선 우리나라가 최종 승자가 됐다.

U-20 월드컵은 FIFA가 주관하는 대회 중 월드컵(1930년 시작) 다음으로 역사가 길다. 지난 1977년 튀니지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출발점인데 올해까지 3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7년 캐나다 대회부터 U-20 월드컵으로 명칭을 바꿨다.

정부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을 현지로 파견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차관은 "그동안 유치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부처, 재외공관,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자들의 노고, 그리고 전 국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 등의 성공 개최 경험을 활용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U-20 월드컵 유치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노력이 주효했다. 지난 1월 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정 회장은 국제축구계 영향력 제고를 위해 유치전에 뛰어들어 한국의 축구 외교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발휘했다.

"기존 시설 활용해 낭비 없는 대회 치를 것"

2017 U-20 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지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회를 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유치신청서 및 협약서를 제출한 서울·인천·대전·울산·제주·수원·전주·천안·포항 등 9개 도시 중에서 최소 6곳, 최대 8곳을 개최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G

글·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숫자로 본 2017 U-20 월드컵

4위 한국의 U-20 월드컵 최고 성적(1983년 멕시코 대회)
6개 도시 대회 개최도시(최대 8개)
21회 1977년 시작된 U-20 월드컵은 2017년 21회째
24개국 U-20 월드컵 참가국
895억원 2017 U-20 월드컵의 경제 효과
2천여 명 2017 U-20 월드컵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 숫자
3937명 2017 U-20 월드컵의 고용창출

응답하라! 1983

1983년 4강 신화 이을 될성부른 떡잎 이승우·백승호·장결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의 이승우는 타고난 득점 감각으로 2017년 U-20 월드컵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 2017년 FIFA U-20 월드컵이 열린다. 우리 대표팀의 성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1983년 세계청소년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고, 최근 열린 2013 터키 U-20 월드컵에서는 8강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기대가 더 크다. 4년 뒤 '어게인 2002'에 도전할 재목에는 누가 있을까?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바르셀로나(스페인) 유소년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5)다. 이승우는 득점 감각을 타고났다. 15세 대표팀에서 이승우를 지도했던 정정용 감독은 "이승우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천재다.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은 하늘이 내려준 것 같다"고 감탄했다. 이승우는 지난 9월 열린 2014 U-16 아시아선수권 예선에서 2선 공격수로 활약했다. 라오스 전에서는 홀로 4골을 뽑으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이 내년 태국 본선에서 16개 팀 중 4위 안에 들면 이승우는 칠레 U-17 월드컵에 나서게 된다.

떡잎부터 달랐다. 2009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는 초등부 주말리그에서 29골을 기록해 서울지역 득점왕을 차지했다. 초등리그 왕중왕 토너먼트에서는 11골을 넣어 또 득점왕에 올랐다. 강경수 대동초 감독은 "승우는 예상치 못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상대 수비수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해 골을 넣는다"며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까지 좋으니 공격수에게 필요한 재능을 다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승우, 천재적 골 감각에 스타성까지 갖춰

우물 안 개구리도 아니었다. 세계무대에서도 통했다. 그는 2010년 유소년 월드컵이라 불리는 다논 네이션스컵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12골을 몰아넣으며 득점왕이 됐다. 골 장면도 하나같이 그림 같아서 현지에서 자원봉사하는 여학생들이 그를 졸졸 따라다닐 정도였다. 스타성 역시 뛰어나다.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등 성격도 밝고 활달하다. 아버지 이영재 씨는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소년팀 등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족의 품을 떠나 생활해 자립심이 강한 것도 승우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스포츠신문 〈문도 데포르티보〉는 최근 '이승우는 제2의 메시'라며 이승우를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선수 중 메시와 가장 닮은 선수'라고 이승우를 치켜세웠다. 이승우 역시 자신의 롤모델인 메시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중이다. 이승우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레알 마드리드전은 꼭 찾아가서 본다"며 "항상 메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데 그처럼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우가 뛰는 유소년팀에서 1군 진입의 꿈을 이루는 선수는 2~3년에 한 명 정도다. 최선을 다해 1군에서 뛰는 게 이승우의 목표다.

이승우를 제외하고도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선수들 중에는 유망주가 많다. 스페인은 유로 2008, 2010 남아공월드컵, 유로 2012까지 메이저대회에서 세 번 연속 정상에 오른 강호다. 비결은 단단한 유스 시스템이다. 한국 유망주들도 이 문틈을 비집고 많이 진출해 있다.

스페인 진출 1세대인 백승호(16) 역시 1997년생으로 2017 U-20 월드컵에서 뛸 수 있다. 백승호는 공격 2선에서 뛰는 미드필더다. 그는 칠십리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해 득점상과 최우수선수를 석권했다. 2009년 초등리그 18경기에서 30득점을 올렸고, 화랑기에서는 6경기에 10골을 뽑아내는 엄청난 득점 감각을 선보였다.

강경수 대동초 감독은 "승호도 승우 같은 천재였다. 민첩성과 스피드가 좋아 또래 아이들 중에는 따라올 아이가 없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어린아이답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있다"며 "언제나 냉정하기 때문에 득점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백승호는 후베닐B(17세 이하 팀)에 소속돼 활약 중이다.

이승우와 동갑내기인 장결희(15)도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뛰고 있다. 처음에는 그리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지만 서서히 실력을 키우더니 이제는 점점 무서운 선수가 돼가고 있다. 정상훈 숭곡초 감독은 "처음부터 천재성을 발견하진 못했다. 그러나 왼발을 아주 잘 썼다. 왼발잡이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프로 선수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고 기억했다.

백승호

장결희

수비도 든든하다. 제2의 기성용을 꿈꾸는 김성민(15)은 스페인 헤타페에 입단했다. 전남 영광초를 졸업한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스페인으로 건너갔는데 처음에는 스페인 구단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스페인 3부 리그의 CD폴토자노 유소년팀에 테스트를 통해 겨우 입단했다. 그러나 김성민의 가치는 딱 4경기 만에 드러났다. 우연히 그의 경기를 지켜본 카를로스 게레로 헤타페 기술이사의 눈에 띄었다. 게레로 이사는 "기술적으로 아직 미흡하지만 활동력이 뛰어나다"며 "어린 나이에 침착함을 갖췄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다"고 칭찬했다.

15세인 김성민은 키가 벌써 182센티미터다. 체격 조건이 좋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능력까지 갖췄다. 마드리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헤타페는 2004~2005시즌 승격한 이후 꾸준히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건실한 팀이다. 또 마드리드 지역 유스팀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수준 높은 팀의 유스팀과 꾸준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헤타페의 카데테A(16세 이하)에 입단한 김성민은 여름 훈련기간 동안 주전으로 급부상했다. 중앙 수비수로 보직을 결정한 뒤 안정감이 더해졌다. 유망주가 공격진에만 쏠린 한국 축구에 희망적인 소식이다. G

글·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어린이·청소년 에너지 음료 섭취 "그만!"

1~2캔만 마셔도 권고량 초과… 성장억제·위장장애 등 부작용 우려 높아

김현동 기자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음료 소비가 늘면서 다량 섭취 시 카페인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졸릴 때 마시면 잠이 달아나고 기분이 언짢을 때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느 청량음료와는 다른 맛이 있어서 계속 찾게 되기도 하고요."

평소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김민서(12·초등6) 양의 얘기다. 민서 양의 말에 따르면 "반 친구들 중에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아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전날 밤에 몇 캔을 마셨는지"를 겨룰 정도라고 전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린이·청소년들까지 흔히 마시고 있는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현황에 대한 통계 보고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29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을 비롯한 카페인 섭취 현황을 알리고,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 판매량 증가에 따른 카페인 과다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국내 유통(국내 제조+수입)은 2011년의 5,410톤에 비해 2012년에 4만1,848톤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에너지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마시는 양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카페인 과다섭취 시 청소년 성장에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의 효과에 기인한다. 시험 기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늘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야만 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에너지 음료의 효과는 좀처럼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사실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식품원료인 카페인은 커피콩이나 녹차잎 등 식물에 함유된 성분으로 콜라나 초콜릿, 녹차, 커피, 오렌지주스 등 일반식품에 함유돼 있고 진통제 등 의약품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과다섭취. 카페인을 과다섭취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맥박이 상승하는 '빈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고 흥분상태로 인해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카페인을 먹은 직후에는 잠이 오지 않아 밤샘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면 습관이 깨지면서 그 다음날 심한 피로감이나 졸음, 집중력 저하, 소화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올 수도 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장기간 카페인을 과다섭취할 경우 위장장애가 생길 우려도 높아진다. 이 같은 증상은 성인은 물론이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큰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한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이다. 몸무게가 40킬로그램인 어린이의 경우는 100밀리그램, 60킬로그램이라면 150밀리그램이 된다. 그런데 시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살펴보면 평균 62밀리그램으로 커피나 녹차 등 다른 음료를 마시지 않고 에너지 음료만 1~2캔을 마셔도 금세 일일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주류와 섞어 마시는 음주습관도 위험

성인의 에너지 음료 과다섭취는 주로 음주 습관에서 나타난다. 에너지 음료를 주류와 섞어 마시는 이른바 '예거 밤'이라는 칵테일이다. 주류에 고카페인 음료를 섞어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효과로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라도 본인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량에 비해 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는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TV 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피피엠(ppm) 이상인 액체 식품에 대해선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카페인음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TV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

구 분	어린이 (8~13세, 41.0kg)	청소년 (14~19세, 59.3kg)	성인	전체
1일 평균섭취량 (권고량 대비 섭취수준)	12.1mg (11.8%)	30.6mg (20.6%)	86.9mg (21.7%)	67.1mg (16.8%)

출처·식품첨가물 안전성 재평가 연구 –감미료 등 24품목(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 어린이·청소년 2.5mg(kg당) 성인 400mg

국내 유통 중인 커피·에너지 음료 제품의 카페인 함량

*실태조사 시점 : 커피류(2012년 10월), 에너지 음료(2013년 5월)

"심청을 '책비'로 다시 그려냈어요"

(책 읽어주는 소녀)

〈My story, 심청〉 김인정 작가, '2013 아시아 창작시나리오 국제공모전' 수상

오종찬 객원기자

김인정 작가는 "제 작품 속 심청은 동양 여성의 특징인 전형적인 외유내강 캐릭터"라고 말했다.

'눈먼 심 봉사(심학규)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과 목숨을 맞바꾼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고 이후 황후가 된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알고 있는 〈심청전〉이다. 그런데 만약 '작자 미상' 〈심청전〉의 작가가 사실 심청 자신이라면? 심 봉사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My story, 심청〉은 우리가 알던 심청과는 매우 다르다.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비'로 살던 심청이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을 지어내서 떠난다는 시나리오다.

이 작품은 '2013 아시아 창작시나리오 국제공모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문화부가 후원했다. 우리 고전 〈심청전〉을 신선하게 각색한 데다 향후 영화, 뮤지컬, 연극 등으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받았다.

〈My story, 심청〉 속 여주인공 심청은 현대 여성과 많이 닮았다. "맞아요! 제 작품의 심청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자서전적으로 쓴 거거든요." 12월 10일 광주 로터스 북카페에서 김인정(46) 작가는 낭랑한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심청은 동양 여성의 특징인 전형적인 외유내강 캐릭터예요. 강단이 있고 책임감도 강하죠. 여기에 제가 살을 붙인 심청은 전문적인 직업(책비)이 있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떠날 수 있는 적극적인 소녀에요." 김 작가는 심청에게 푹 빠진 듯했다.

그가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된 건 4년 전 광주 MBC 국악프로그램 〈얼씨구학당〉의 작가로 일하면서다.

"판소리로 접하는 심청은 볼수록 현실의 우리와 많이 닮아 있고, 〈심청전〉은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지컬 〈캣츠〉보다 아름답고 〈맨 오브 라만차〉보다 웅장한 이야기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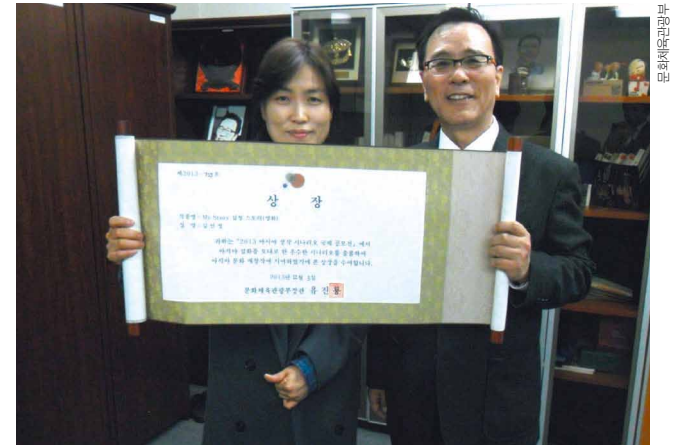
그는 이후 원전을 읽으며 심청에 대해 연구했다. 심청 설화가 등장한 조선 후기의 배경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서민문학의 부흥기로 기록되는 이 시기는 언문소설의 대유행기이자 서점과 강독사가 성행했어요. 고전에는 인물의 전형적인 캐릭터만 살아 있고 그 시대적 배경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 바탕을 세밀화처럼 그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4년간의 치밀한 구상과 준비 끝에 완성

김 작가는 조선 생활사와 전문서적을 탐독했다. 하지만 공부는 단순하지 않았다. 구전설화로 전해지는 〈심청전〉은 다양한 버전으로 해석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불교·도교적 사상과 토속신앙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까지 공부해야 했다. "파고 또 파도 끝이 없더라니까요"라며 그는 혀를 내둘렀다. 〈My story, 심청〉은 4년간의 치밀한 구상과 준비 끝에 완성했다.

심청이 책을 읽어주는 책비, 즉 이야기꾼인 이유는 무엇일까? 김 작가는 "여성 강독사, 낯설겠지만 신분에 제한이 있던 조선에서 똑똑한 여성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었죠"라며 "이는 아시아의 공통문화이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나 중앙아시아에도 직업적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박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아킨', 한국에서는 '책쾌'(남성) 혹은 '책비'(여성)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심청은 책을 읽어주는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 덕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 심청은 작가와도 닮았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꼭 그렇다. "8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어요. 시장에서 조그마한 신발가게를 운영했지만 가난했죠. 성실한 분이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매여서 꿈을 못 펼쳐 안타까웠어요. 노래와 기타에 재주가 있으셨는데도 말이죠."

문화체육관광부

〈My story, 심청〉은 '2013 아시아 창작시나리오 국제공모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상자 시상은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버지를 보며 자신만큼은 좋아하는 일을 꼭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창작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관심이 많다. 작품에도 잘 드러난다. 1991년 예향 논픽션 공모 최우수작품상을 받으며 펜을 잡게 된 첫 작품 〈어느 촌부의 만가를 찾아〉는 염을 하던 큰아버지 이야기다. 이후 21년간 방송작가로 일하며 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뽕백년사〉, 〈한복 2부작〉, 〈굿〉 등도 한국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전국스토리텔링공모전 수상작품 〈추사, 해녀를 만나다〉는 추사 김정희가 해녀를 만나 민중의 삶을 이해하는 이야기다.

요즘 기획하는 이야기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다. "〈열하일기〉는 중국까지 이어지는 로드다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시험장에서 그림을 그려 버리는 '조선의 아웃사이더' 박지원, 정말 매력 있지 않아요?"

김 작가는 〈심청전〉과 같은 설화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아시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신화·설화를 발굴해야 해요. 〈손오공〉 〈서유기〉를 넘고, 욕심을 부리자면 〈로마신화〉와 같은 대작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죠."

글·박지현 기자

"김장문화는 전승되어온 한국 고유문화"

아리랑 등에 이어 16번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연합

12월 6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뒷마당에서 열린 '2013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참가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12월 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는 '김장문화(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간위원회는 총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위원국들은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져 온 김장문화가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 결속과 연대감을 높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2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90퍼센트의 한국 가정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장문화'가 자발적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도 최종 확정에 크게 기여했다.

등재를 돕기 위해 정부는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 및 위원국들과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장문화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리랑(2012), 강강술래(2009), 판소리(2008),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8) 등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식문화로는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등재

식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우는 흔치 않다. 현재 음식과 관련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4개국의 지중해 요리, 멕시코 전통요리, 일본의 전통음식문화인 와쇼쿠 등 5건이다. 우리나라 김장문화는 식문화로서는 여섯번째로 등재된 것이다.

이번 등재로 김장문화 전승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이예나 사무관은 "지금도 김장문화가 잘 전승되고 있지만 이번 등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김장문화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식문화를 바라보는 폭을 해외로도 넓혀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의미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김장문화'가 국민 생활문화로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김장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현행 법률에서 김장문화가 문화재가 되려면 '일정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 제정으로 향후 보호, 전승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남형도 기자

다시 돌고!

명반 〈들국화〉 출반 27년 만에 새 앨범 〈들국화〉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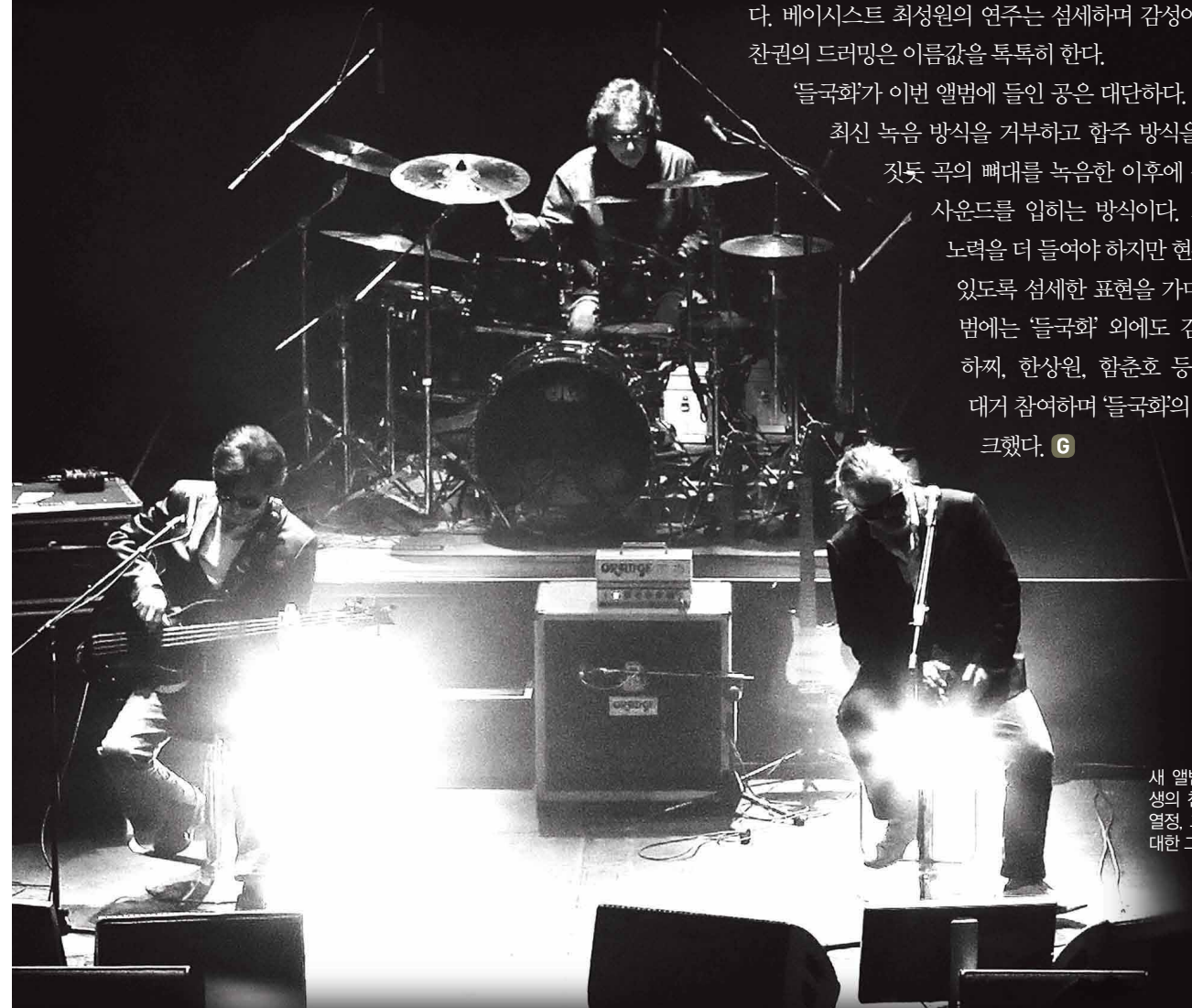
'들국화'가 돌아왔다. 1985년 발표한 1집 〈들국화〉 이후 27년 만에 새로운 〈들국화〉 4집을 발표했다. 〈들국화 2〉(1986년), 〈들국화 3〉(1995년)처럼 연속된 시리즈 앨범 이름을 쓰지 않고 다시 처음의 〈들국화〉로 회귀한 것이다.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등 명곡을 담고 있는 과거 〈들국화〉는 한국 대중음악계 명반으로 손꼽힌다. 새로운 〈들국화〉로 과거 〈들국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밴드 '들국화'를 돌아보며, 완전히 새롭게 음악을 재해석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음반은 드럼을 담당하던 주찬권 씨가 녹음을 마치고 난 지난 10월 사망해 그의 유작으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앨범은 12월 3일 자정에 신곡 '걷고, 걷고'가 공개되면서 발표됐다. 이어서 6일, 또 다른 신곡들과 '들국화'의 이전 앨범 수록곡 12곡이 담긴 리메이크 앨범 등이 2장의 콤팩트디스크로 나왔다. 새 〈들국화〉의 수록곡은 총 19곡이다.

새 앨범에서 전인권은 긴 세월이 무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에너지 넘치는 한편 슬픔이 전달되는, 소울이 깊은 목소리다. 베이시스트 최성원의 연주는 섬세하며 감성이 어려 있고 주찬권의 드러밍은 이름값을 톡톡히 한다.

'들국화'가 이번 앨범에 들인 공은 대단하다. 빠르고 간편한 최신 녹음 방식을 거부하고 합주 방식을 택했다. 집을 짓듯 곡의 뼈대를 녹음한 이후에 살을 붙여가듯 사운드를 입히는 방식이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하지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한 표현을 가미했다. 이번 앨범에는 '들국화' 외에도 김광민, 정원영, 하찌, 한상원, 함춘호 등의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며 '들국화'의 명곡을 리메이크했다. G

글·박상주 기자

새 앨범 〈들국화〉에는 인생의 찬미와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파주 심학산둘레길

겨울 철새 벗 삼아 걷다보면 문득 손잡고 싶은 '연인의 길'

심학산둘레길은 높이 194미터 야트막한 산의 7부 능선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길이다. 지난 2009년 조성된 6.8킬로미터의 숲길은 한나절 정도 산책하기에 좋다. 겨울엔 참나무와 소나무 낙엽이 수북이 쌓여 호젓하다. 서울 지역에 첫눈이 온 지난 11월 말, 낙엽 위로 눈 내리는 심학산둘레길을 걸었다.

경기도 파주 교하 땅은 예전부터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다. 조선 후기 광해군(1608~1623) 시절 천도(遷都)를 생각할 만큼 명당으로 쳤다. 심학산은 교하 벌판과 한강 하구를 굽어보는 야트막한 봉우리다. 산의 이름은 애초 심악(深岳)이었다고 한다. '물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자리'라는 뜻으로 홍수 때 한강이 범람하면 내려오는 물을 막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다가 숙종(1724~1776) 때 전설이 담겼다. 궁중에 있던 학 두 마리가 날아 도망갔는데, 이 산에서 찾았다 해서 '학을 찾은 산, 심학(尋鶴)'으로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다. 학이 둥지를 틀 만큼 품격이 있는 산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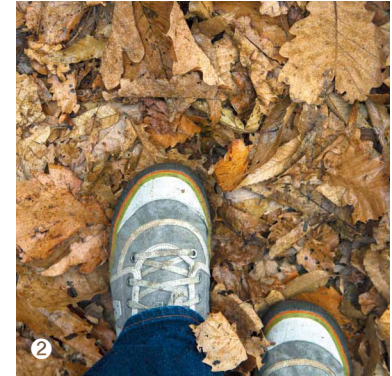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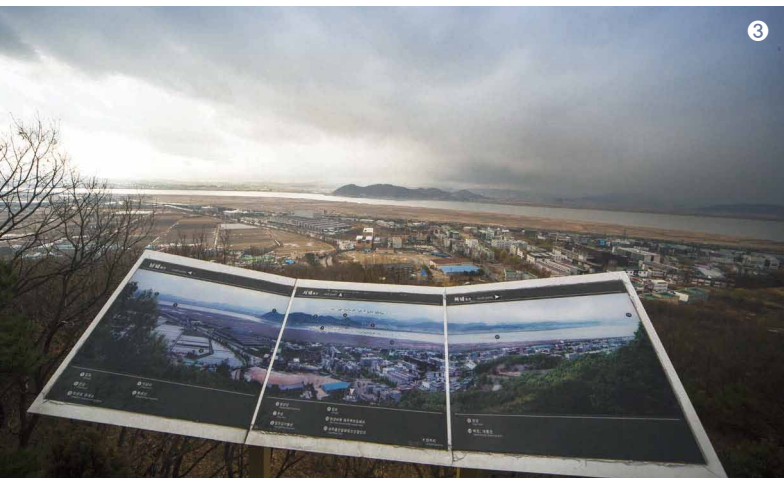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파주출판단지 동쪽으로 산이 올려다 보인다. 참나무가 촘촘해 언뜻 봐도 학이 둥지를 틀 정도로 아늑한 느낌을 주는 산이다. 또 심학산 앞 한강 어귀는 실제로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차를 끌고 가면 약천사 주차장에 세워두는 편이 좋다. 내비게이션에 '심학산'을 입력하면 대개 약천사 주차장을 알려준다.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길의 윤곽만을 대강 훑어본 뒤 차를 몰고 약천사로 향했다.

참나무 낙엽 깔린 호젓한 오솔길

지난 11월 26일 오후, 절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기상이 급변했다.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서쪽에서부터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태세였다. 길이 멀지 않아 딱히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터였다.

약천사 주차장 맞은편에는 이 절에서 가장 큰 법당인 지장보전이 있다. 약사여래대불 위편에 있는 대웅전은 소소한 규모다. 으레 대웅전이 가장 큰 건물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다. 가람의 한가운데에는 높이가 13미터나 되는 거대한 '남북통일약사여래대불'이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약사여래대불은 심학산을 등지고 한강 하구와 북녘을 지긋이 바라본다.

약사여래대불 옆으로 난 길을 오르자마자 각각 3곳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서 있는 갈림길을 만났다. 심학산둘레길에서는 이

1 참나무숲 사이로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2 겨울 심학산에는 참나무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다. 푹신한 흙길 위에 낙엽이 있어 걷기에 좋다.
3 약천사에서 수투바위 가는 길에 놓인 벤치. 숲속 낙엽 위에 설치돼 있어 운치 있다.

런 이정표를 내내 만나게 된다. 왼편을 가리키는 '산마루가든 580미터' 이정표를 따라가면 둘레길을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곧장 가면 심학산 정상이다. 오른편 '수투바위 650미터'를 택했다.

길은 푹신했다. 돌멩이나 나무데크 없는 순흙길이었다. 거기에 손바닥 만한 참나무 낙엽이 깔려 있어 더 푹신했다. 까무잡잡한 흙길 위로 살포시 내린 빛바랜 낙엽, 그리고 빗방울에 젖어 진갈색을 발하는 참나무 둥치가 아늑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수투바위는 둘레길 아래에 있었다. 이정표를 따라 약 5분 정도 내려가니 큰 바위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수투바위쉼터가 보였다. 심학산의 지표는 대부분 흙이지만 더러 이런 큰 바위가 놓여 있다.

한강 하구, 북녘땅 보이는 낙조전망대

수투바위 이정표에서 15분 정도 더 가면 낙조전망대가 나온다. 여기까지 오는 길의 풍경은 비슷하다. 낙엽을 떨군 참나무 아래로 더러 진달래와 철쭉의 앙상한 가지만이 숲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구간에 소나무는 없었다. 참나무 낙엽이 쌓여 있지 않았다면 을씨년스러운 길이 됐을 것이다. 날은 더욱 어두워지고 가는 빗방울은 진눈깨비가 돼 흩날렸다.

낙조전망대의 전망은 훌륭했다. 파주시는 시야가 트이는 자리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산과 들판이 어느 지점인지 안내하는 해설판까지 부착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해설판의 여러 지점 중 한가운데 있는 '봉성산(129미터)'이 눈에 띄었다. 한강과 마주한 야트막한 산으로 낙조전망대에서 보면 정면으로 보인다. 썰물 때 한강의 물이 빠져나가면 봉성산 동쪽 면과 맞부딪는 형국이다.

낙조전망대는 서쪽을 바라보고 설치돼 있다. 하지만 서쪽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일몰을 보는 것은 어림도 없었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리니 먹구름 아래 북녘땅이 보였다. 해설판에는 '북녘 개풍군이 보인다'고 했지만 맑은 날일 경우다. 개풍군 대신 두루미들이 날아와 월동한다는 한강 하구 갈대밭이 보였다. 아직 두루미는 오지 않았는지 들판이 휑했다.

심학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쭉한 모양이며 정상은 서쪽의 중심에 솟아 있다. 낙조전망대는 서쪽 끝이다. 그러니까 약천사에서 시작해 이곳까지 길의 4분의 1 정도 되는 셈이다. 시간은 약 30분 걸렸다. 이정표·해설판의 설명이 딱 맞아떨어졌다.

길은 다시 산의 남면 7부 능선을 훑으며 이어졌다. 산 아래는 출판단지와 전원마을이 자리한다. 남쪽 길 역시 참나무와 소나무 숲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하배수지에서 다시 갈림길이 나온다. 교하배수지는 심학산 둘레길의 서쪽 끝으로 이 지점을 지나면 다시 북면으로 들어선다. 이곳에서 산행 시작점인 약천사까지 약 30분 걸린다.

길의 막바지 부분에서 호젓한 소나무 숲길을 만났다. 조림을 한 것처럼 키 큰 소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빽빽하게 도열해 있었다.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난 길이 지그재그로 이어졌다.

약천사에서 10여분 걸으면 정상 도착

약천사를 기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 데 2시간 10분 걸렸다. 눈비 때문에 제법 빨리 걸었지만, 사진 촬영을 하느라 조금 지체됐다. 약천사에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심학산의 주능선은 동쪽 교하배수지에서 정상, 그리고 서쪽 낙조전망대로 이어진다. 약천사에서 곧장 오르는 길은 지름길이며, 그래서 10여 분이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주변 전망이 한눈에 들어와 일산과 파주, 한강과 임진강까지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가 있는데, 관람용 팔각정자와 조망데크가 있어 구경하기 좋게 만들었다. 일몰 시간 아름다운 낙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대였다.

이때 거짓말처럼 진눈깨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나는가 싶더니 붉게 물들고 있는 서쪽 하늘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김포 방향 하늘이 붉게 타고 있었다. G 글과 사진·김영주(여행 칼럼니스트)

1 높이 13m의 거대한 약사여래대불이 있는 약천사. 한강을 볼 수 있다.
2 심학산둘레길에 있는 약천사 뒤편의 갈림길. 오른편으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3 둘레길 서쪽 끝에 있는 낙조전망대. 파주출판단지와 한강 하구, 김포 등이 보인다.
4 낙조전망대 가는 길의 이정표.

여행수첩

살래길
국가대표 축구훈련장인 파주NFC 인근에 있는 길. 오르막이 없어 '살래살래' 걸을 수 있는 길로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하기 좋다. 약 4킬로미터로 한 시간 남짓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다. 통일동산 중앙공원에 있다.

헤이리예술마을
약 4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둘레길을 걸은 뒤 헤이리예술마을에서 식사나 차 한잔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짜면 좋다. 12월의 전시로 '농사는 예술이다' '강혜민 전시회' '마음걸기, 하나되기', '조광필·최경문 2인전', '이혜민 개인전' 등이 열리고 있다.

오두산통일전망대
북한 땅까지 직선거리가 불과 460미터로 '휴전선 155마일' 중 비무장지대 폭이 가장 짧은 곳이다. 맑은 날이면 해발 140미터 전망대에서 이북지역 민가를 볼 수 있다. 매년 100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자유로 성동IC에서 나가면 금방이다.

차를 가지고 간다면 자유로 문발IC에서 나와 약천사까지 약 10분 걸린다. 주차장이 있고 초입까지 접근이 쉽다. 교하배수지, 서패리 꽃마을에도 주차장이 있다. 버스는 서울 합정에서 출발하는 2200번 버스를 타면 파주 출판단지 앞까지 간다. 출판단지에서 시작하면 산의 서쪽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하철 경의선 금촌역에서 100-9번 버스, 운정역에서 83번 버스, 3호선 대화역에서 200번 버스를 타면 출판단지에서 하차한다.
문의 ☎ 파주시청 공원녹지과(031-940-4631)

얼큰한 콩나물국밥 모주 한잔 곁들여 캬~

중앙포토

날씨가 추워지니 뜨끈뜨끈한 국밥 생각이 절로 난다. 옛날부터 탕반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는 별의별 국밥이 다 있지만 서민들과 친근하기로는 콩나물국밥 만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 콩나물의 역사는 길다. 문헌에 나오는 최초의 기록은 고려 고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236년에 간행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콩을 싹 틔워 햇볕에 말린 대두황(大豆黃)이 약으로 이용된다"는 구절이 보인다. 식용으로 콩나물을 먹은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유추되는데 10세기 초 고려의 개국공신 무열공 배현경(裵玄慶)이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던 군사들에게 콩을 냇물에 담가 콩나물을 만들어 배불리 먹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 후기에 출간된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대두황의 가루를 약으로 삼아 먹으면 곡식을 먹지 않고서도 흉년을 넘길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이후에 나온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가난한 자는 콩을 갈고 콩나물을 썰어서 한데 합쳐 죽을 만들어 먹는데 족히 배를 채울 수 있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콩나물을 지진 막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 콩나물이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구황식품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콩나물은 두아채(豆芽菜), 숙아채(菽芽菜), 두아, 황두아채 등으로 불리다가 1859년에 간행된 〈농가월령가〉에 콩나물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나타난다. 콩나물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인 이규태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콩나물 먹는 전통이 없다. 그들이 먹었다면 콩나물이 아니라 녹두 싹인 숙주나물이었을 따름이다. 동양에서도 숙주나물을 먹은 역사는 길지만 콩나물을 먹는 전통은 문헌상으로 보아 우리나라뿐"이라고 했다.

콩나물국은 해장국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이 피로 회복과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술이 덜 깬 아침에 뜨거운 콩나물국을 들이키며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건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닐까.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조선상식문답〉에서 콩나물을 전주의 명식으로 꼽기도 했지만 콩나물국밥 하면 역시 전주가 본고장이다. 전주의 콩나물국밥에는 계보가 다 있다. 뚝배기에 콩나물국과 밥을 말아 펄펄 끓여서 내는 '전통식'이 있고 국으로 밥을 토렴한 뒤 말아서 내는 '남부시장식'이 있다. 전통식은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 덜 뜨거운 남부시장식은 콩나물이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별미다. 달걀도 전통식은 끓는 국에 풀어서 내고 프라이를 하나 더 곁들이는 데 반해 남부시장식은 반숙한 수란을 따로 낸다. 전주 사람들은 이 수란에 뜨거운 국물을 몇 숟갈 붓고 김을 잘게 부숴 넣은 뒤 같이 먹는다.

전통식의 대표주자는 고사동의 '삼백집'이고 남부시장식의 대표주자로는 경원동의 '왱이집'과 중화산동의 '현대옥'을 꼽는다. 서울에서는 봉천동의 '완산정'과 북창동의 '전주유할머니비빔밥'이 콩나물국밥으로 이름난 집들이다.

콩나물국밥에는 막걸리나 술지게미에 대추, 계피, 감초, 흑설탕 등을 넣고 끓여서 만드는 달콤한 모주를 한잔 곁들여야 제격이다. 모주는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에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 씨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생계를 위해 술지게미로 술을 걸러서 내다 판 것이 유래라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 술을 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고 해서 대비모주(大妃母酒)라고 부르다가 모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G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혼·분식으로 '귀한 쌀' 아끼자

올해도 대풍년을 이뤄 쌀 소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쌀 소비가 급감해 특수미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쌀 소비 촉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몇 년 전부터 '쌀은 한국 사람의 체질에 딱 맞는 음식'이라는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쌀=밥'이라는 공식을 깨고 '고아미쌀'로 만든 유아용 파우더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먹는 쌀이 바르는 화장품으로 개발되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하지만 그런 쌀도 귀하신 몸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으로 낸 '식생활 개선 캠페인' 광고(동아일보 1972년 1월 18일)를 보자. 이 광고에서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혼·분식을 합시다!"라는 헤드라인을 써서 혼·분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생활 개선과 미곡 소비절약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을 바탕으로 혼·분식은 애국의 길, 정부 시책의 요점, 혼·분식의 이점, 국민의 협조 요청 같은 4가지 핵심 사항을 선정해 깨알같이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주식인 쌀은 그 영양 성분으로나 경제성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며 쌀의 가치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있으니, '쌀은 한국 사람의 체질에 딱 맞는 음식'이라는 최근의 광고 메시지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

1972년 1월 18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식생활 개선 캠페인' 광고. 혼 · 분식을 장려하고 있다.

이 광고 이후에도 정부의 식생활 개선 캠페인은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정부 광고 바로 아래에 동아제분(밀가루회사) 광고나 삼립식품(제빵회사)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정부는 '혼·분식=애국'이라는 논리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한 셈이다.

정부 광고의 설득 논리는 이렇다. 혼·분식이 애국이다(숨은 전제) → 애국하기 위해 혼·분식을 하자(주장)→혼·분식을 해야 건강해진다(논거). 숨은 전제를 제시한 다음 주장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논거를 제시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인 문법을 구사한 셈이다. 그 무렵의 정부 광고에서 자주 활용하던 방법이었다.

혼·분식 장려 운동은 1969년 1월 23일 정부의 행정명령 고시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음식점을 실사해 위반한 업소를 엄중 처벌했는데, 1975년 8월에는 서울에서만 1,336개 업소가 적발되어 8개 업소는 허가취소, 691개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학교에서도 매일 점심시간마다 쌀밥에 보리나 밀가루가 25퍼센트 이상 섞여 있는지 도시락 검사를 했다. 혼·분식 여부를 성적에 반영했기에, 부잣집 엄마들은 도시락용 밥을 따로 짓거나 2층 밥을 지어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다. 식량 자급에 성공한 1977년에 들어서야 그 행정명령이 해제되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이런저런 행사들이 자주 열리고 있다. 행사장에 가보면 축하 화환이 즐비한데, 행사가 끝나면 그 많은 화환들이 현장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어차피 보내고 받아야 할 화환이라면 차라리 쌀을 대신 보내면 좋지 않을까? 1972년의 광고 문구처럼 말하자면 화환 대신 쌀을 보내는 것도 애국의 길이다. 쌀 소비 문제를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접근해 다양한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G

글 · 김병희 (한국PR학회 회장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고대 유럽 역사를 바꾼 나무

플라타너스라는 나무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껍질이 벗겨져 줄기가 얼룩덜룩하고 잎이 넓은 나무를 우리 주변에서 가로수로 흔하게 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흔히 플라타너스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국적인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이야기를 살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타너스는 특정한 한 종류의 나무 이름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플라타너스속(屬·*Platanus*)으로 분류하는 몇 종류의 유사한 나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플라타너스 종류는 6~10종(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남)이 있는데, 이 중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플라타너스는 양버즘나무(*P. occidentalis*)와 단풍버즘나무(*P.X acerifolia*)의 2종이 있습니다. 괄호 속 알파벳 표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라타너스 종류 중에서 양버즘나무가 국내에서 우리들이 가로수로 흔하게 보는 바로 그 나무랍니다. 양버즘나무라는 이름이 좀 괴상한가요? 플라타너스 중에는 원산지가 서남아시아와 남부 유럽인 버즘나무(*P. orientalis*)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버즘나무에 비하여 북미대륙에서 온 유사한 나무를 '양버즘나무'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버즘나무라는 이름은 껍질이 얼룩덜룩한 것이 마치 피부병인 버짐이 핀 것 같다 하여 맞춤법대로라면 버짐나무라고 써야 할 것을 무슨 사유인지 '버즘나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양버즘나무가 아닌 버즘나무는 국내에서는 제가 열심히 찾아다녔건만 지금껏 찾지 못하고 있다가, 유럽 여행 도중에야 마침내 실물을 만나게 되어 진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도 못할 평범한 나무를 보고 왜 그렇게 감격했느냐고요? 버즘나무에 얽힌 유명한 일화를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위대한 대왕 크세륵세스는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 속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크세륵세스왕은 이 길을 따라가다가 한 그루의 플라타너스나무를 보았다. 그는 이 나무에 매혹되어서는 나뭇가지에 금으로 된 장신구를 달아주고 그의 정예보병들(immortals) 중 한 명을 택하여 그 앞에서 나무를 지키도록 명하였다."

아름다움으로 페르시아군의 진군마저 늦췄다는 플라타너스의 하나인 양버즘나무.

또는 크세륵세스왕이 이 나무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진군을 중단하고 그 밑에서 며칠 동안 뭉그적거리는 바람에 도시연합국가였던 그리스 병력이 한데 집결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말았다고도 합니다. 결국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빌미가 되어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쟁 이후 아테네가 그리스 세력권의 맹주로 등극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만일 이 일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단 한 그루의 나무가 유럽의 역사를 바꾼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웅장한 나무 앞에 도취되어 서 있는 고귀한 왕의 모습보다는 홀로 남겨진 채 나무를 지켜야 했던 고독한 전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황량한 벌판에 우뚝 솟은 한 그루의 장대한 플라타너스,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그 앞을 지키고 선 충직한 페르시아 전사. 그는 전쟁의 승패나 주군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까지도 그의 외로운 영혼은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없는 나무 곁에서 하염없이 대왕의 귀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G

글과 사진 · 김태영(자연생태연구가 · 〈한국의 나무〉 공저자)

외세에 꺾인 자주 근대화 의지

1897년 10월 12일 고종 황제는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하였다. 삼한(三韓)에서 이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대한'이라 하였고, 황제국임을 선포하여 '제국'이라 한 것이었다.

우리는 흔히 조선왕조가 1392년 건국되어 1910년 한일합병으로 멸망할 때까지 '조선'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1897년 10월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조선이 멸망할 때의 국호는 대한제국이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13년간 존속한 황제국의 나라로서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고종이 자주적 근대국가를 지향한 나라이기도 했다.

고종 황제 즉위식은 환구단에서 이루어졌다. 10월 12일 고종은 국새를 싣고 환구단으로 가서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나서 황금색 의자에 앉아 국새를 받았다. 그동안 '천세'만을 부르던 신하들은 '만세'를 세 번 불렀다. 10월 13일 고종은 명성황후의 빈전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오전 8시경 '대한'이라는 국호를 선포하였다. 고종이 황제로 격상됨으로써 왕실의 복식과 호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황제는 황색의 곤룡포를 입었고, 의식을 치를 때 입는 면복(冕服)에는 12가지의 무늬를 넣은 십이장복(十二章服)을 사용하였다.

고종은 황제국에 걸맞게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근대화를 추진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대한제국은 1899년 8월 교정소라는 특별 입법기구를 통해 대한제국의 헌법인 9개조에 걸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였다.

'대한국국제'에는 황제가 육·해군의 통수권을 비롯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부여하였다. 고종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근대화의 길로 나아갔다.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으며, 고급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학교를 세웠다. 황제는 대원수 복장으로서 별이 다섯 개 달린 프러시아식 군복을 착용하였다. 1902년 독일인 에케르트로 하여금 애국가를 만들게 하였다. 근대적인 소유권 확립에도 힘을 기울여 근대적 토지증서인 지계(地契)를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었다.

대한제국 근대화의 중심에는 고종 황제가 있었다. 황실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산, 홍삼, 철도 수리 사업 등의 이익을 황제 직속의 내장원(內藏院)으로 이관시켰다. 고종은 황실의 재산을 군대 양성과 공장 건립, 외국 도서 수입 등에 사용하였다. 일제의 압력이 심해질 때 고종의 비자금 중 일부는 의병운동의 지원에도 흘러갔고, 1907년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할 때도 상당수의 비자금을 활용하였다.

중앙포토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국새.

고종은 일제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러시아 등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 특히 서양 문물에 관심을 보였다. 캐딜락 승용차를 타 보기도 했고, 선글라스를 착용하였다. 경운궁 정관헌에서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나누었다.

대한제국은 짧은 기간 안에 국방, 외교, 교육, 산업,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자주적인 근대화의 길로 한걸음씩 나아갔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의 침략과 방해는 집요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제로 넘어갔고, 1907년 6월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황태자인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켰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함께 대한제국은 그 힘을 완전히 잃었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역사 속의 마지막 황제국 대한제국. 비록 13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한 고종 황제의 노력만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G

글 ·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정책·공익광고의 힘은 간결함

〈심플러〉

캐스 선스타인 지음
장경덕 옮김
21세기북스·1만9,800원

'넛지(Nudge),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찔러 선택을 유도하라.'

2009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넛지〉를 기억하는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경영자 필독서로 꼽아 화제가 됐던 책이다. 이 책의 공동 저자였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이 후속작을 내놓았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 부드러운 선택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넛지'를 다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해 온 그는 '넛지'가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조명한다.

'넛지'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사람들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줄 방식으로 '넛지'가 이뤄진다. 자동차 회사에 새로 나온 승용차의 연료 효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거나, 직원들이 저축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넛지'는 기업, 사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책 변화와 함께 말이다. 미국에서는 여러 정책 촉진 계획에 활용되었고 정부의 규제와 정책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 연료 경제성, 에너지 효율, 환경보호, 건강관리, 비만 문제 등이다. 영국에서는 일명 '넛지팀'을 만들어 금연, 에너지 효율, 장기 기증, 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들을 촉진하는 데 '넛지' 방식을 활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과 사회 공익적 요소, 디자인, 마케팅, 광고 등에 '넛지'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넛지' 활용 방식을 다룬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단순화'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결국 복잡하고 딱딱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까다롭고 복잡해질수록 '넛지'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저자는 '단순하고 부드러운 개입'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넛지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명쾌하게 다루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없애고 누구나 이해하도록 바꾸는 것이 '간결한 넛지'로 가는 길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형식 절차비용을 줄일 법령을 채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 관료들은 환자들이 무엇을 아는지 알아야 한다. 결정적 정보는 민간 영역의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며, 무엇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강조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크고 작은 기업 모두를 포함한 민간 부문에서도 교훈을 찾아내려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과 사물을 어떻게 더 단순하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그 과정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는 서문에서 한국 독자들에게 "이 서문을 쓰는 주된 목적은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넛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박지현 기자

새로 나온 책

인생의 목적어

정철 지음 | 리더스북·1만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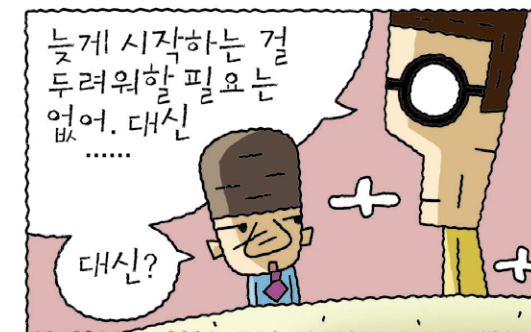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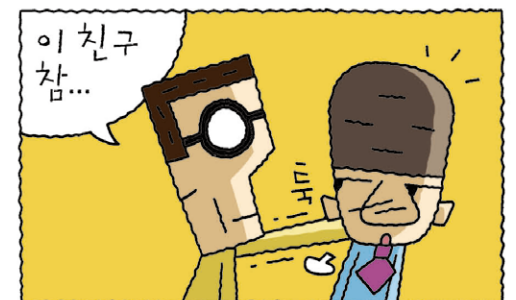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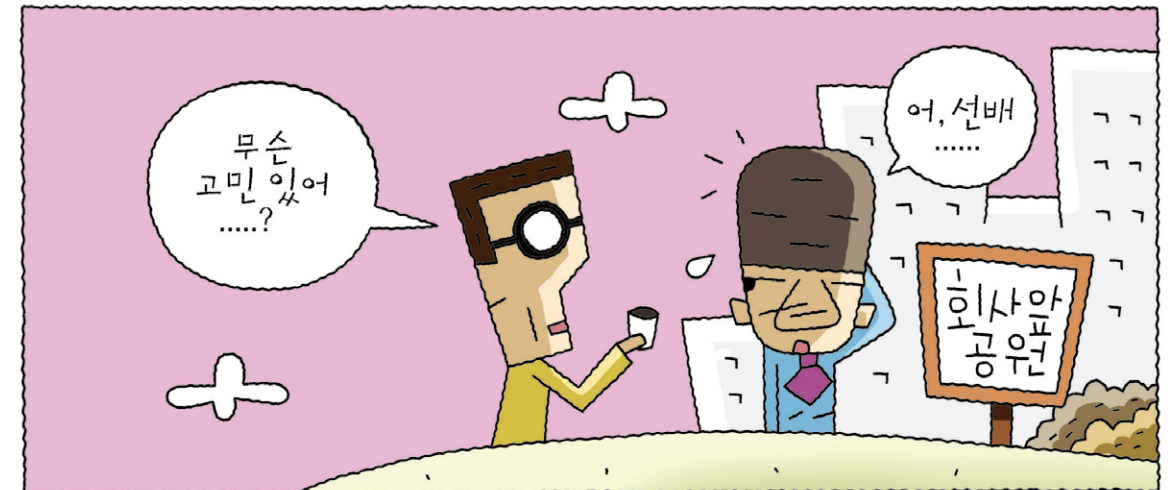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책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설문에 응답한 총 2,820명이 인생의 목적어로 꼽은 단어는 총 3,063개였다. 그 중 책에 수록된 단어는 50개다. 특유의 역발상을 가진 카피라이터 정철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원고지에 올려두고 곱씹었다.

인문학, 한옥에 살다

이상현 지음 | 채륜서·1만4,800원

서양미학으로 한옥과 전통예술을 살펴본 책이다. 기존 서양 고전미학의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건물 이상으로 한옥의 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책에서는 한옥이 현대적인 감각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미학에서 아름다움이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보는 사람의 주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

글과 그림·최영순

희망은 언제나 힘든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 베를레느(프랑스의 시인)

세종문화회관

음식을 담는 용기와 조리기구를 미술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아트앤쿡(ART&COOK)-미술을 담다' 전시.

그릇에 담긴 창의력

〈아트앤쿡-미술을 담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방용기들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찾아낸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4년 1월 22일까지 '아트앤쿡(ART&COOK)-미술을 담다' 전시회가 열린다. 2006년 '상상레시피', 2011년 '맛있는 미술'에 이어 세번째 시리즈로 열린 이번 전시는 음식을 담아내는 용기에 집중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에서 한국의 전통도기 명인과 현대작가들이 음식을 담아내는 용기와 주방용품들을 어떻게 미술적으로 표현했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작가 17인이 이번 전시에 참여하며 공예작품을 포함한 다채로운 현대미술작품 1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항상 접하는 그릇·용기 소재를 설치, 사진, 미디어로 풀어내는 작가들의 작품이 공개된다. 도자기 테이블웨어(밥·국 공기, 접시, 컵 등)의 음식을 담는 본래 기능을 시각미술적으로 표현한 신동원 작가의 작품, 도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낸 황현승 작가의 작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관람객들은 전시기간 동안 자신만의 텀블러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관계자는 "작가들이 그릇을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시켰는지 전시를 통해 알아보고,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텀블러를 만들어보면서 작가들의 창의력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G

글·김혜민 기자

기간 2014년 1월 22일까지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문의** ☎ 02-399-1156

공연

김창완 밴드 CONCERT

연말을 맞아 김창완 밴드와 산울림의 주요 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12월 27일 인천 부평구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뭉클-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소리'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산울림은 1970년대 한국 록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며 주옥 같은 명반을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김창완 밴드의 솔직하고 순수한 사운드를 감상하고 밴드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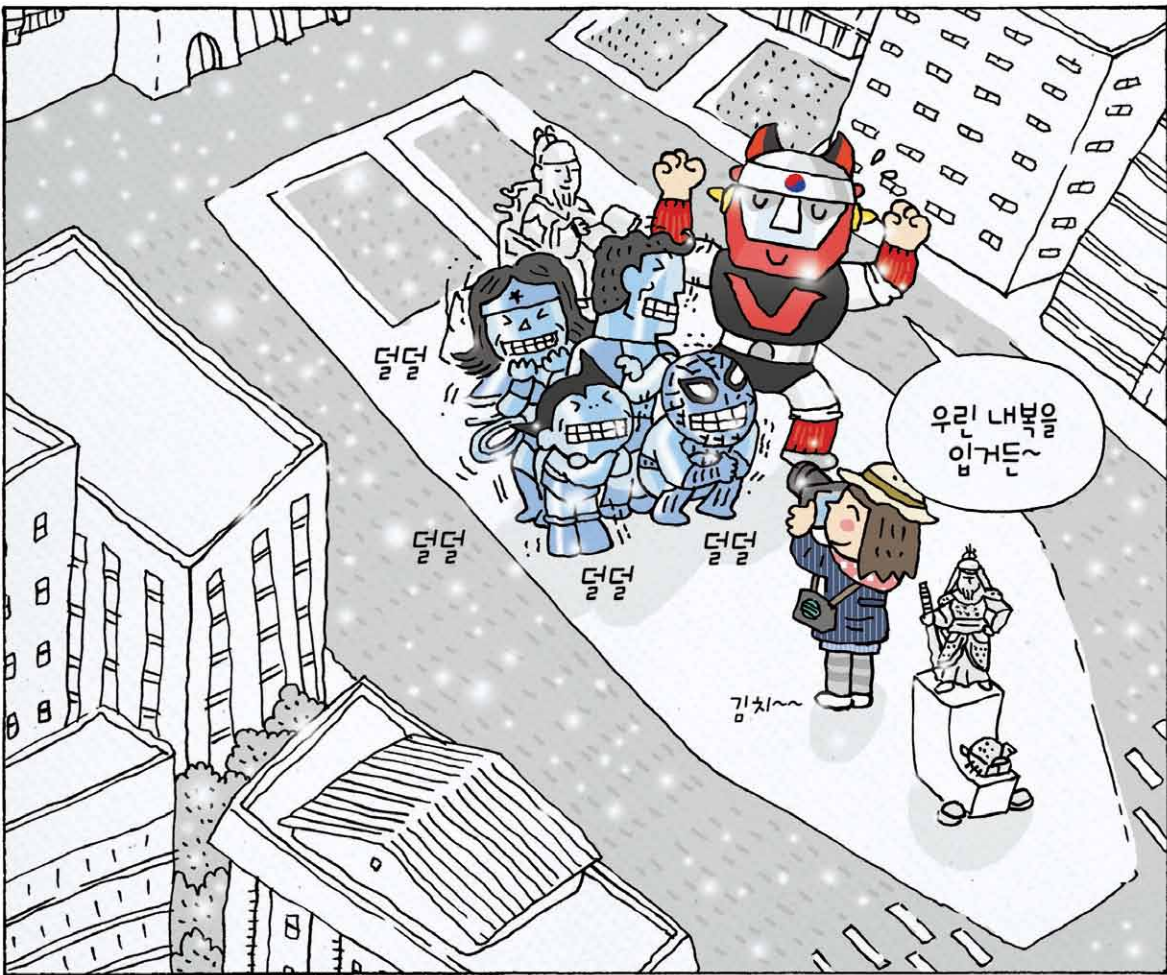
일시 12월 27일 오후 8시
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아트센터
문의 ☎ 032-500-2000

제야 완창판소리 안숙선의 정광수제 수궁가

2013년 12월의 마지막 날 안숙선 명창의 제야 완창판소리 공연이 마련된다. 안 명창은 29년간 지속된 '완창판소리' 공연 중 여섯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참여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안 명창은 타악그룹 '푸리'의 소리꾼 한승석 명창, 스타 소리꾼 남상일 명창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12월 31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중구 국립극장
문의 ☎ 02-2280-4114~6

내복 사랑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내복 입기로 따뜻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구나 '작은 사람'이었다

중앙포토

누구나 배냇저고리를 입었던 작은 사람이었다.

12월 초 어느 흐린 날이었다. 그날 따라 미세먼지로 도시가 온통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다. 황사, 미세먼지 따위들이 점차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네 숨쉴 권리를 조금씩 앗아가는 것 같았다. 그날 마련한 입마개를 하고 거리를 나다녔다. 숨이 저절로 막혀오는 것 같아 순간 아찔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 들숨이든 날숨이든 평소에는 별로 신경 써 보지 않았던 터였는데, 숨쉰다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마음은 바빴지만 발은 느려졌다. 생리적인 생존본능 덕분일까. 빨리 걷는다면 더욱 헉, 헉, 거친 숨을 토해낼지도 모를 터이므로 발이 나서서 숨을 조절하는 모양이었다.

느리게 걸어서 '느린 풍경' 앞에 섰다. 이청준 소설을 비롯한 여러 소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이른바 소설화(小說畵)의 새 장을 연 한국화가 김선두 선생의 전시회였다.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전시회는 놀랍게도 구불구불한 변두리 텃밭의 풍경이었다. 남녘 바닷가 시골 출신인 그는 오랜 서울 생활을 하면서도 고향의 구부러진 길을 잊을 수 없었나 보다. 현묘한 곡선 터치를 통해 시골 풍경과 도시 변두리 풍경이 아스라이 겹쳐져 있었다. '빨리, 빨리'를 강요당하는 도시의 직선이 아닌 변두리 시골의 곡선을 통해서, 그는 파시스트적 가속도의 시대에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곡선은 한없이 깊어져 확산되고, 늘어지면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네 원초적 고향의 정서의 밑자리로 내려갔다. 나 역시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의 문명 비판적 느림의 미학에 십분 공감하면서 편안한 숨을 느리게 쉴 수 있었다. 고향에 다가선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그 '느린 풍경'을 음미하며 잡지를 보다가 어떤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읽게 되었다. 7남1녀 중 4형제가 신부가 되었고 1녀마저도 수녀가 되었다고 했다. 속초 청호동성당의 오세민 루도비코 신부님의 이야기였다. 사제 서품을 받고 첫 본당으로 떠나던 날 아침 노모께서 "신부님께 드리는 엄마 선물입니다"라며 보따리를 건네주셨다. 어머니의 선물이 궁금했던 아들은 그날 저녁 보따리를 끌러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깃적 배냇저고리와 한 살 무렵에 입었다는 털실로 짠 아주 예쁘고 자그마한 털옷이 얌전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 위에 어머니께서 연필로 꾹꾹 눌러쓰신 손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신부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월간독자 Reader》 2013년 12월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돌았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원래 '작은 사람'이었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조금 전 김선두의 '느린 풍경'을 고즈넉하게 따라가며 고향의 풍경을 그려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나의 시선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음을 이제야 알겠다. 그 구불구불한 구절양장(九折羊腸)의 시골길 끝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었던 나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작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봐달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조용히 나를 찾았던 것을. 그 목소리를, 그 눈빛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나이가 들고 분수 넘게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칫 외면하는 일이 잦았던 구불구불한 시골길 위의 '작은 사람'의 풍경은 느리지만 더욱 선명하게 내게 다가왔다. 눈물이 미세먼지로 더렵혀졌을 눈가를 씻어냈다. 긴 날숨을 내쉬었다. 다음 주에는 그 '작은 사람'을 만나러 고향길에 올라야겠다. G

글 · 우찬제(문학평론가 · 서강대 문학부 교수)